

제434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9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3.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0)
4.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5.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6.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7.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8.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9.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11.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12.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13.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14.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15.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16.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17.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18.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3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4
3.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0) 4
4.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4
5.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4
6.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4
7.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4
8.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4
9.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4

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4
11. 2026년도 수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4
12.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4
13.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4
14.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4
15.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4
16.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4
17.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4
18.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4

(14시09분 개의)

○소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진성준 위원입니다.

이틀간의 종합정책질의로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참여하셔서 수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 위원님, 박형수 간사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또 임미애·김대식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또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10일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 일정을 맞추려면 심사 일정이 정말 촉박한 상황입니다. 충실하게 심사를 하면서도 또 신속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오늘 저녁 6시에 만찬을 함께하십시다 이렇게 청하고 또 식당도 예약을 해 왔습니다만 심사 상황에 따라서 만찬 장소나 시간 이런 것들도 다 변경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더라도 하겠다 하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인사말씀 듣는 것이 순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저만 신참일 뿐이지 다들 1년여간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고 대표로 양당 간사 위원님들 인사만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여당 간사 이소영입니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국민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나프타 수급 그리고 운임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큰 고충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여야가 4월 10일까지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번 소위 과정에서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심사해서 합의된 처리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여야 위원

님들과 함께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형수 간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위원입니다.

중동전쟁의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편성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예비비나 다른 조치를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표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고유가,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곳 여기에 편셋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위 심사 과정을 통해서 방만한 부분들은 다 걷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들, 추경예산을 살펴본 결과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편셋 추경이라기보다는 25조 원의 초과세수가 생기니까 그걸 쓰기 위한 추경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걷어 내고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를 어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채원도 축적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방만하게 편성된 부처 예산들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걷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도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님 인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지금 중동전쟁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추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이시지만 국회 예결위가 정말로 모범의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서민생활 위협 그리고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신우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효율적이면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 조용범 예산실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예산실장 조용범 원활한 소위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3.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0)
4.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5.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6.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7.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8.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9.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11.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1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13.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14.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15.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16.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17.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18.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14시15분)

○소위원장 진성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부분은 생략하고 3페이지의 로마자 V번, 심사 대상과 방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다음, 심사 방식입니다.

전체 심사 순서는 감액심사 다음에 증액심사 다음에 부대의견 심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심사 건수는 약 81건이고 증액심사 건수는 약 267건입니다.

심사 결과 보류된 사업은 추후 위원장님과 간사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미의결된 상임위가 있습니다. 재경위와 산자중기위 2개 상임위입니다. 이들 상임위에 대해서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부처의견 청취, 위원님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과 증액이 직접 연계된 감·증액 연계사업 그리고 세입 예산안 및 기타 특이사항도 오늘 감액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심사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심사는 각 교섭단체 위원님 중 한 분씩 총 두 분으로 구성된 별도 심사기구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간사님 확인을 거쳐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관 상임위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5페이지와 6페이지의 별첨자료에는 심사 대상 부처와 1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편성된 상임위는 총 10개 상임위원회이며 오늘 기준 이 중 8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상단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상임위 심사 결과 총수입은 증감액이 없고 총지출은 증액이 3조 5071억 7400만 원 또는 2조 7557억 5500만 원이고 감액은 239억 5600만 원 또는 434억 7100만 원으로 총지출 순증액 규모는 3조 4832억 1800만 원 또는 2조 7122억 8400만 원입니다. 총지출 증감액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행안위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별 구체적인 증액 및 감액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페이지에는 부처별 예비심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동계획에 따라서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는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도걸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감액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의견 제시를 거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안녕하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설세훈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권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은 국립부설학교 및 국립특수학교 42개교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학교 태양광 보급은 중장기 정책과제로서 긴급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이월이 예상되므로 증액분 9억 9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줄입니다. 학교 내 태양광 설비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사실상 이거 우리 교육위 간사가 조정훈 위원이고 또 하필이면 제가 교육위 위원이고 또 교육위에서 위원장을 조정훈 위원님께서 맡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이게 추경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강력한 의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야 합의해 가지고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마침 박형수 간사님께서 이거를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또 우리 당 내의 의견도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방침은 교육부의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수 간사님이 감액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간사한테 한번 듣고 이렇게, 우리 둘이는 합의해서 넘긴 거니까.

○**박형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진성준** 예.

○**박형수 위원** 이쪽 얘기 안 해요?

○**소위원장 진성준** 우리 박 간사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박형수 위원** 저는 이거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만 있는 것

이 아니거든요. 이번 추경에 이 관련된 태양광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불필요한지도 판단해 봐야 되고 또 개별적으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올린 것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사업의 필요성 이것과 전체적인 감액의 필요성 이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 놓고 같이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김대식·조정훈 위원님께서서는 원안 유지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박형수 간사님께서서는 보류해서 한꺼번에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류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진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3개월 만에 동일 사유로 재차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현장 수요도 불분명하므로 증액분 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줄입니다. 거점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이것은 제가 평소에 교육위 활동 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원안대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갑니다.

○박형수 위원 ‘예’가 아니고 제가 지적했는데 지적한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막가요?

이게 증액 부분도 있는데 감액 동의를 하면 증액 상관 없이 그냥 원안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소영 위원 감액을 하면 증액을 못 합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원안 유지를 하면 증액을 다시 또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소영 위원 그것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원안 유지를 하고 증액은 별도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거는 원안 유지하고 그거는 별도로?

○이소영 위원 예.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거 김대식 위원이 평소에 주장했다는데 원안 유지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비재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성이 낮고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신규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청년 취업 지원보다는 대학 재정 보전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으므로 283억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의 셋째 줄입니다. 타 사업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20개 사업단을 추가하기 위해 14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김대식 위원 이것도 제가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예산 하면서 굉장히 감론을박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교육부가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다, 뒤에서 충분하게 그거를 준비를 해 보라고 했는데 계획 세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충분한……

○김대식 위원 담당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때 내가 지적을 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대학에 최대한 빨리 안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성과관리계획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면 한다는 게 아니라 미리 교육부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냥 돈을,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는 마지못해 한다는 그런 냄새를 풍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걸 할 테니까 돈을 주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육부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이지현 저희가 확보된다고, 당연히 확보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되는 대로 바로 이행되게 하려고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을 갖는데, 그 계획이 지금 충분하게 서 있으나 이거예요.

○교육부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이지현 예, 저희는 지금 기존 88개 사업단에 대해서

일단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단과도 계속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가 그때 소위 할 때 여기서, 예결위 소위에서 제가 물어본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차관께서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중동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취업하지 않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서 그동안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 온 그 노하우를 살려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라든지 직무역량을 키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안도걸 위원님.

○박형수 위원 김대식 위원님……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대식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서 확고한 계획이 서고 이것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동의를 했잖아요, 취지에. 저도 대학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내가…… 그래서 오늘 확고한, 다시 한번 묻겠다고 해서 그런 계획이 섰느냐 이러니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네.

○소위원장 진성준 예, 계획이 서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진성준 마이크 사용 하시지요.

○안도걸 위원 계속사업이고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23년부터 해 온 사업인데요. 굉장히……

○소위원장 진성준 차관, 마이크 쓰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23년부터 지금 3년, 올해까지 4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안도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째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안도걸 위원 지금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다 동의를 해 줬잖아요. 또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 다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고 하니까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이 7.7%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안도걸 위원 그냥 쉬었음이 지금 얼마입니까? 45만 명. 여기 빨리 이 유희인력들을 생산 현장으로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준비 계획이 확고하게 섰다면 취지에 동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유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 버려 가지고……

○소위원장 진성준 원안 유지, 원안 유지.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육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정책사업은 국립대학 36개교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긴급·한시적 성격의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대규모 이월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증액분 1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대학 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국립대학에 의해서 그동안에 좀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거는 추진을 점차별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대학, 서울대학교하고 인천대학 이 두 군데에서 하는데 이 대학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기 싫다고 하는데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인천대학도 확인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그냥 추경을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데 이 추경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본인 그 대학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계속 교육부에서 돈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국립 인천대학이나 서울대학교가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태양광 같은 거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서울대랑 인천대는 이 사업 아니고 별도의 예산이……

○김대식 위원 별도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 그건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서 증액 요구가 온 거고요. 이거는 국립대학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서울대와 인천대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 이 사안은 앞서 국립부설학교 태양광 사업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 해서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보류하시지요.

○김대식 위원 예, 그러지요. 다음에 이것도 함께……

○소위원장 진성준 넘어가시지요.

끝났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과기부 1차관 구혁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차관 류제명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수도권 AI선도지구 발굴 용역 사업은 AI 선도지구를 발굴하기 위해 검증하는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2차관입니다.

동 사업은 지금 AI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주요국들이 이런 수도권 중심의 전략거점 구축을 통한 집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내 인프라의 전략거점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정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과연 추경에 적합한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시켜 주더라도 용역은 5~6월에 기관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연구는 12월까지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텐데 12월에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아시는 대로 2027년 본예산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차분하게 수도권 AI선도지구를 발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에 투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본 예산의 사업 내역으로 봤을 때는 시급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지금 AI 거점을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수도권이 또 이런 쪽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될 겁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시킬 수 있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라는 것이 완결은 연말까지 되겠지만 중간보고는 또 나오지 않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안도걸 위원** 중간보고가 언제쯤 나올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는 문제하고 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또 산학연의 협력 연구 그리고 규제개선 과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28년 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이 용역 결과가 조속히 나오는 대로 내년도 예산 반영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요. 우리가 통상 용역 결과가, 중간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보통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중간 결과를 보고 내년 예산 반영 여부는 아마 국회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조금이라도 당기려고 한다면 이번 추경에 넣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돼야만이 그다음에 지정 문제라든가 이게 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본 사업 소요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안도걸 위원** 그런 일정,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일단 이것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AI선도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발굴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발굴하는 것 자체를 용역 준다, 지역을 발굴하는 것을. 그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 하나 해 주고 그다음에 좀 전에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겨 가지고 빨리빨리할 수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금 수도권에 주요 대학들도 있고 수도권 인근에 있는 반도체클러스터나 저희가 AI의 집적화는 가장 낮은 인프라 차원의 반도체부터 서비스 기업까지 풀스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대학,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하면, 어느 지역에 유치를 하면 글로벌기업과도 협동 연구가 원활하고, 몇 군데 후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나 또 과천 지역이나 여러 가지 수도권 내의 입지들을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가장 집적의 효과가 큰 지역을 저희가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보고는 저희가 정부예산을 제출하기 이전까지 중간보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AI는 워낙 우리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 용역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원안유지하고 다음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사업, 울산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사업,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사업,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사업, 이상 4개 사업이 정리돼 있는데요. 감액의견과 원안유지 의견의 취지가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의 첫 번째 칸을 봐 주십시오.

내역사업인 창업 및 사업화협력 사업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추경 취지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창업리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상금 소요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16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인건비 사업은 대구경북 과학기술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매년 고정지출되는 경상경비 성격으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므로 추경 증액분 2억 4000만 원 전액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하 나머지 3개 과학원의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 내용도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청년실업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이런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카이스트 등을 포함하는 과기원이 주도하는 좀 똑똑한 창업, 임팩트가 있는 딥테크 창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 네 개 사업에 대해서는 박형수 위원님이 다 반대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박형수 위원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국에 다 하나씩 하자고 하는 것인데……

○박형수 위원 이것도 보류, 보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것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창업의 기반도 만들어야 되고 특정 지역에만 가는 것도 아닌데……

○박형수 위원 심각한데 뒤에 또 다른……

기왕 위원장님이 청년실업 얘기하자고 하니까 얘기를 드리겠는데,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다 단기 알바성 일자리들을 막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추경의 본질에 맞느냐? 저는 이 부분은 보류해서 진짜로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보류하고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두 분 간사 위원께서 보류하자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에 감·증액 사업 1건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지역안착과 경제효과 창출 및 민생안

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추정 취지와의 부적합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추정 증액분 87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두 번째 칸에 마지막 줄입니다—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7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은 상임위 안을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여러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의 성과라든지 딥테크 기업들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좀 더 호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상임위 안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전쟁추경이라고 그러고 긴급한 데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추경을 R&D에다가 투입하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R&D 투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연구개발특구에 이미 2026년, 저도 기억납니다만 1673억 통과한 건데, 그래서 지금 쓰고 있을 텐데 여기다가 87억이지요, 지금. 이게 큰 틀에서는 한 10%도 안 되는 것을 더 추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26년, 지금 겨우 4월이기는 합나다만 이것 다 썼습니까, 1600억? 이미 다 커밋(commit)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지는 않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 연구개발특구 중요성은 압니다만 이렇게 큰 꼭지의 예산을 지금 어떻게 썼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긴급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역사상 가장 일찍 한다는 추경에 R&D 예산을 갖고 왔다? 저는 이게 무슨 민생과 관련이 있으며 유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보류하셔서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도걸 위원 차관님, 이 사업이 R&D 사업입니까, 아니면 R&D의 결과로 나온 결과물을 지금 상용화하는 사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후자입니다.

○안도걸 위원 후자지요? 이것 창업하고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것은 R&D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어디까지나 R&D 성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이면 빨리 산업화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신규 기업도 창출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미 집행을 해 보니까 50개 팀이 신청을 했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지금 전체로 해 가지고 사업물량을 보니

까 57개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50개……

○안도걸 위원 지금 이 패턴대로 간다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경쟁률이 저는 한 2~3 대 1은 될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장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 이만큼은 늘려야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요즘 창업이 어려운 창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초기에 기술이 개발됐을 때에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하는 과정에서는 그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좀 적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좀 어렵더라도 우리 젊은 창업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초기 앞단에 지원금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도걸 위원 저는 굉장히,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 봐서 아주 시급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지금 부처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시급성과 필요성도 있고 또 단지 R&D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정말 제가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께서 또 증액의견을 제시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모든 정황을, 상황을 참고해서 원안 유지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보류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봅시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충분히 살펴볼게요.

○소위원장 진성준 이렇게 보류사업이 많아지면 두 분 간사 위원님과 위원장한테 부담이 온통 오는 건데 그것을 세 사람이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이 전쟁추경이고 고유가 대응 추경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로 인한 파급이 전방위적으로 걸쳐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아도, 이 사태가 아니었어도 청년이나 또 우리 바닥 경제난은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 아닙니까? 잘나가는 기업들, 반도체, 수출기업들은 좋지만 그 온기가 바닥으로 안 내려가고 있어서 걱정이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넓게 보자, 어려운 국민들 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를 한번 지원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좀 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형수 위원 추경의 성격을 위원장님처럼 규정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추경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추경은 유가로 인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

데 그 원칙을 마치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원칙에 다 동의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추경 심사를 진행하자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 건은 보류하고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보류하겠는데, 국민의힘의 원칙이 그런 거지.

사실 정부의 원년과는 달리 추경안의 세부내역들을 보면 꼭 기름에 직접적 타격과 충격을 받는 계층만 지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박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진성준 우리 경제 전반의 체력들도 좀 뒷받침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추경의 어떤 요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추경 요건에 무슨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그게 추경 요건이 됩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지금 경제가 심각한……

알겠습니다.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보류하고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할게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한말씀하십시오.

○안도걸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법상으로 보면 추경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침체,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실업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복합위기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하방압력으로 꺼지고 있잖아요, 특히 실업 문제도 나오고. 특히 석유산단 같은 경우, 여수나 서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직격탄 맞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용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타개하자는 게 추경의 목적인 거지요. 꼭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의 하방압력을 막자 이게 굉장히 크다, 그게 바로 요건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거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추경의 요건이고요. 경기침체로 인한 우려로 우리가 추경을 한다 그러면 상시 추경을 해야지요. 그러면 경기침체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해야지요.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막 회복 국면에 있었잖아요.

박형수 위원님, 과도하게 말씀은 하지 마시고……

○박형수 위원 이 부분은……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이 사업 보류합니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지출, 감·증액 사업 1건 있습니다.

과기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AI통합바우처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청년창업기업 동반 성장 바우처 사업은 전통기업이 AI 분야 청년 창업 기업의 AX솔루션을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의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사업이 존재하며 사업 지원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2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에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은 AI솔루션을 갖고 있는 청년기업 또 AI 창업기업이 소상공인들 같은 어려운 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동반성장의 효과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생 안정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차관님. 그런데 아까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 법적 조건에 대해서 살짝 논쟁이 있었습시다만 지금 굉장히,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한 결정적인 배경은 누가 봐도 이란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월이라는 정말 매우매우, 지금 25년 법인세 확정도 되기 전에 지금 가불해서 추경하는 거를 일정까지 동의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꼼꼼하게 예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그 사업이 이 AI통합바우처 사업인데 작년 예산에 저희가 8890억 했고 지금 200억 더 증가하겠다고 하신 건데 저희의 정보에 의하면 2월 말까지 기준 실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0원이고. 그래서 기본 본예산 사업조차…… 활발하다? 아까 방금 전 예산과 같이 그런 거라는 자료도 저희는 없는 상황에서 또 추가로 200억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AI청년창업기업이 만든 전통 뭐라 그럴까, 솔루션을 전통기업이 사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 만들어진 솔루션을 전통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 주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20개 사에 지원한다는데 지원하는 건 전통기업입니까 아니면 청년창업기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래서 20개의 청년창업기업이 20개의 전통기업을 도와주는, 그래서 40개의 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통기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청년창업기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둘 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내가 어떤 전통기업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갖고 와야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본예산 897억으로 몇 개나 선정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올해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모를 3월 30일까지 해서 선정 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리는 말씀……

○조정훈 위원 그러면 몇 회사 지원할 예정이었습니까, 지금 897억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350개 기업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원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작년, 350개가 이제 솔루션 기업이 되겠고요. 또 똑같이……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지금 평가 중이시라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원 회사가 몇 개냐고요.

○소위원장 진성준 공모에 응한 회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공모에 선정될 기업이 350개 기업이고요, 솔루션을 갖고 있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회사는 몇 개냐고요.

○소위원장 진성준 공모 신청한 기업은 몇 개예요, 공모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작년 경우에는 저희가 5 대 1 정도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리고 재작년에는 7 대 1 정도……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자료가 어떻게 되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방금은 평가하고 있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3월 30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숫자는 저희가 확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3월 30일이니까 공모 마감한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숫자 파악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숫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 대 1, 재작년에는 6.8 대 1, 그 재작년에 10 대 1이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저는 취지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 달에 추경을 하자고 갖고 왔으면, 특히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으면 기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집행되고 예산이 본예산 짤 때보다 더 수요가 있고 미리 집행되고 있다는 뭔가 자료를 들고 오는 게 예산 요청하는 부서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회사에서 지원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0억을 덜컥 더 달라 그러면…… 이제 또 추가 공모하실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자료를 미리 충분히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만 작년, 재작년 사업 경험을 보면 굉장히 수요들이, 10 대 1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소영 위원 차관님, 조정훈 위원님께서 어쨌든 이게 집행이 가능할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적절하게 감액 조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지금 200억으로 20개 공급기업 그리고 20개 전통기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보다는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조정훈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로 필요하시면 감액을 해야 여러 가지로 새로운, 저는 이거는 더 이상 총액을 늘리는 건 저희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 조정하는 게 저희 소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조정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역대 사업 연도별 경쟁률이 10 대 1, 7 대 1, 5 대 1이었다고 하니까……

○조정훈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소위원장 진성준 자료를 좀 제출하세요. 이번에 공모 신청한 기업은 몇 개예요?

○이소영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요 어쨌든 그런 경쟁률까지 감안해서 본예산이 수립된 거였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 그것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소영 위원 그래서 부처에서 필요한 것은 20개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야당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조정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님, 하여튼 저희는 그동안의 경쟁률 그리고 올해도 130개 AI 바우처만 하는데 700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적어서……

○이소영 위원 절반으로 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반 감액하는 것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예, 절반이면 수용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수용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소영 간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5배, 10배, 이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한 거예요. 추경에 없었으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니예요. 추경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요청한 것의 절반이라도 하게 되면 과기부로서는 이 사업이 전보다는 훨씬 더 탄력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왕이면 많이 하면 좋지요. 간사 위원님께서 절반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이견이 없는데 이왕이면 많이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절반 감액.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절반 감액이 절반 증액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정부안에서 절반을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박형수 위원 본예산에 비해서 절반을 증액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지금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본부장 김광용입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조실장 김주이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착석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4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 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의 첫 번째 동그라미, 이 사업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받는 자들에게 지역·소득별로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인건비 1억 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증액·감액안이 있는데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유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하위 70%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집행해서 피해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지금 부분 부분 나눠서 얘기하는데 인건비 감액 1억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용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진성준 수용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정책 대상 및 문제 인식이 불명확하고 물가 상승 자극 우려 등이 있으므로 전액인 4조 8251억 8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유지가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화물차 운전자, 택시, 택배, 기타 생계형 운전자 등 고유가로 고통받는 자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예산 739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상임위

의견이 있고.

네 번째 칸입니다.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1조 804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어서 4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이 크고 적기 예산편성이 어려워 적기 시행이 불가하므로 지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러 증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해외 동포 역시 고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624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칸입니다.

추후 실효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액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증액 같은 경우도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추가하는 부분은 작년에 했을 때는 전 국민 대상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더 포함시켜도 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도 70%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억 원 증액도 굳이 이렇게 증액되지 않아도 현재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제가……

○소위원장 진성준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이게 속기록이 있고 이래서 기록에 남겨야 돼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명과 집행기준, 두 쟁점에 대해서 점검할 대목이 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대식 위원 실제 선별기준은 개인별 고유가 피해 정도가 아니라 소득수준과 거주지역 중심으로 설계돼 있지요? 지금 그렇게 설계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대식 위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서민층 부담 경감 사업입니다만 지급대상이나 지역별 예산소요는 공개되지 않았고 분명 이 사업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과 본 위원이 의견이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 사업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국고보조율 구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추정안에 서울이 70%예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대식 위원 그 외 지역, 부산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80%로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 지원단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대식 위원 단가는 여러 층으로 나누는데 보조율은 서울과 그 외 지역 두 단계로만 묶여 있다 보니까 같은 비서울 수도권 안에, 그러니까 비서울권 안에서도 1인당 대응지방비는 일반 대상자 2만 원에서 기초수급자 12만 원까지 크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게 틀린 것 없지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역 현황과 인구 구조에서 재정력이 약하고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체감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관님, 이것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교부세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를 위한 지적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가, 행안부가 이번 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별 재정력도 봐야 되고 취약계층 비중도 봐야 되고 인구 감소 이런 것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전액 국비 보조를 포함한 보조율 다층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행안부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액 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채를, 기채를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채무를 지나 지방이 채무를 지나 동일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같은 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세수로 했고 또 지금 지방에도 그만큼 교부세가 4.7조 원, 교육 빼고 지방교부세가 4.7조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1.3조 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3.4조는 오히려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장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지방정부에 4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돈이 없대, 돈이. 그것을 하더라도 매칭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게 되면.

○소위원장 진성준 김대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안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다음날, 토요

일부터 설득을, 설명을 해 드리면 됩니다. 아직 저희가 교부세 가내시를 확정적으로 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얼마큼 받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시간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그것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진성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형수 위원** 이것 어차피 보류 의견이니까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제일 큰 덩치를 보류해 버리면 어떡해. 보류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소위원장 진성준** 뭘 하루 종일이야.

○**박형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따 답답하시네.

○**이소영 위원**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사실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안해서……

○**박형수 위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우리가 진행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이걸 큰 덩치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면 하루 종일 해도 결론 안 납니다. 이거는 어차피 위원장님도 지도부 해 보셨으니까, 나중에 지도부가 해야 되고 이런 성격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 논의하면 시간만 갑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지방비 부담을 더 줄여 주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이거 삭감하자는 얘기는 제가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박형수 위원** 그것은 당연한 전제로 우리 당이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소위원장 진성준** 임미애 위원님 한말씀하시고 넘어갈게요.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은 사실 종합정책질의 때 여러 차례 다루어졌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야당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체 삭감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 비율을 조정하자라는 건지에 대한 의견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저희가 얘기하고 들어가야 소소위로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수 위원** 우리 당의 입장으로는 전체를 다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답변됐지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한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안도걸 위원** 이번에 고유가로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유사한 사례가 2008년도에 한 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유류세 환급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했고 6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소득 계층에 따라 다릅시다만 지급한 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수도권, 비수도권은 10만 원, 15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구당 가구원 수 2명 계산하면 평균 가구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저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번에 휘발유라든가 경유 가격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가구당 에너지 비용이 한 20%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약 4만 원 정도가 느는 겁니다. 그래서 월 4만 원의 부담이 는 것을 이번 20만 원, 30만

원 타 가지고 5개월이나 6개월 보조를 해 준다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필요 최소한에, 그것도 소득 하위 70%에 한정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사례, 또 이게 굉장히 한시적인 소규모 소액의 지원이다라고 봤을 때 이 정도는 저는 필수적인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고……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라는 우리 당의 의견은 지금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류 가격이 급등하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다가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지 국민 모두가 피해를 안 입었다 또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금하지 말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남겨 놓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행안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고용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195억 15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입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116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중동전쟁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 우려 속에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박형수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일자리 경험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앞으로 미래세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땀질식으로 신규사업에 이렇게 이것을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내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여기에다가 이

번에 넣을 게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장기적인 것을 행안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이 추정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아요,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것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지금 7.7%더라고요. 그리고 쉬었음 청년이 최근 통계 보시면 75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쉬었음 청년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사회연대경제라든지 마을 기업 이런 데서 일경험을 해 봄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는 취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미애 위원** 야당 위원님들이 추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이 위기는 어쩌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쩌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루스벨트가 대공황시기에 미국을 어떻게 개조해 나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한다면……

당시에 그냥 사회의 시설에 대한, 테네시강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졌거든요. 당시에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결국 지금의 미국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의 추정은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다시 한번 재설계하는 방식의 추정 편성·집행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연대조직에 대한 지원과 확대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정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루스벨트 대통령 그때…… 하기가 이게 또 토론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산출근거 보면 참여수당이 2500명에게 5개월 동안에 이게 주게 돼 있어요. 이것 뭐 땀질식이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장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의견이 갈리시니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행안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차관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들, 관계관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제2차관 김대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기획조정실장 김정훈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3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문학관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문학 관련 분야 청년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일회성 일자리에 해당하고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증액분 14억 9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학관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에 정부안 14억 9600만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있는 50개 문학관에 2명씩 인턴을 배치하고 그 인턴의 6개월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학관에는 인력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문학관이 거의 관장 한 사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워낙 열악해서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조정훈 위원 취지에서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학관에 정규직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이 들어갈 생각은 아직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들은 정규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거야 행안부하고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100명 고용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은 이렇게 청년일자리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14억은 제가 그냥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용하신다고요?

○조정훈 위원 예.

○박형수 위원 잠깐, 이것 반대의견 냈는데 왜 막 수용한다 그래.

○소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위원님 반대의견 냈어요. 감액의견, 진짜 박형수 위원님 전부 다 반대야.

○박형수 위원 아니, 잠깐만.

○조정훈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음 게 있어 가지고.

○박형수 위원 이 사업은 저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처들은, 제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처들 전체가 이런 단기 일자리 사업들을 다 넣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논의를 하면서 어떤 거는 위원들끼리 얘기하다가 ‘이건 수용, 이거는 안 돼, 뻐’. 이렇게 원칙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보류를 해서 전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로 이 부처에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걸 따져보고 해야 되지, 여기서 즉흥적으로 똑같은 성격의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체납관리단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수용하고 저거는 수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류를 해서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 이소영 간사님.

○안도걸 위원 이 문학관 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 우리 문과 출신들이 지금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도 기술계 인력들은 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고.

또 문학이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한강 작가……

○안도걸 위원 콘텐츠의 핵심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단기 일자리지만 단기 일자리만 계속 제공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함양해서 그다음에 정식 일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디딤돌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영원히 여기다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전체 문학관 중에서 지금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거의 지금 80%가 넘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50개 중에서 46개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청년들 일자리 굉장히 문제거든요. 전부 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떠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안도걸 위원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지방에 붙들어 놔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해서 원안 유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간사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단기

일자리라고 다 반대해 버리고 보류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형수 위원 보류를 하자라는 것이 다 삭감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예를 들어서 모두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삭감해야 된다면 비율에 따라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느 거는 전폭적으로 다 수용해 주고 어떤 것은 비율에 따라서 감액한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다 동일한 단기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하더라도 그걸 따져보고 소소위 과정에서 이거는 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남은 안건 중에 이런 일경험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여서 지금부터 유사한 게 나오면 다 일괄 보류로 처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진성준 저는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국민의힘의 조정훈 위원님도 그런 저런 점들, 단기 일자리다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하시면서도 동의한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박형수 간사위원님 의견이시니까 더 무겁게 들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박형수 위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지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진성준 글썄, 무겁게 받겠습니다만 같은 정당에서도 이 취지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수용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박형수 위원 아까 수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수용할 것이 있고 우리 당의 입장으로 수용하지 못할 게 있고 또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수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다가 간사가 맞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일괄 보류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유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표를 좀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이런 단기 일자리들, 일경험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보류한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6페이지입니다.

2번,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재원을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고 추정 목적과 괴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증액분 5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지원 확대를 위해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청년 콘텐츠 기업의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해서 정부안 500억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가 본예산이 2600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또 추가로 500억을 추정 요청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특히 펀드사업이니깐요. 다른 일반적인 펀드 사업처럼 공고 내고 운용사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매칭이니깐 민간자금 매칭이 들어와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정훈 위원 그다음에 자펀드 결정해야 되고. 수개월 걸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정훈 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문체부 추진 일정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7월에 출자공고 내겠다, 9월에 운용사 선정하겠다. 그리고 12월 이후에야 실제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문체부도 예측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현장에 자금이 투입되는 시점은 거의 100% 내년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지금 추정에 이렇게 서둘러서 500억 원이나 모태펀드에 넣을 필요가, 시급성이 과연 있는가.

특히 4300억, 지금 4300억 이미 확보돼 있는 그 모태펀드 출자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모태펀드 출자 지금……

○조정훈 위원 자펀드 결성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것 이번 4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3월에 1차 선정했고요, 4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제 공고를 시작하는 거지요. 운용사 선정도 아직 안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이 청년창업 펀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모태펀드 말씀하십니까?

○조정훈 위원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요. 모태펀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모태펀드는 지금 운용사 선정을 3월에 했고요, 4월에 최종 선정 완료 예정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청년 콘텐츠 펀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두 달씩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투자 개시되는 시점을 10월로……

○조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올해 안에 자금 투입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올해 안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10월까지……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부대의견에 남기고 만약에 올 말에까지 투입 안 하면 정부 관계자 책임지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정훈 위원 그때부터 입장이 달라지시지요? 부대의견에 넣기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이것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두 달 당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오늘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해 드리고 부대의견에 넣을게요, 자신 있으면. 그러면 그다음에 남으면 다음번에 왔을 때 청년 콘텐츠 펀드 정별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약속 못 지키시면. 지금 이게 추정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 맞는지 지금 확인하는 건데 왜 그렇게 감언이설처럼 두 달 당길 수 있다고 하시면서 책임지라 그러니까 말을 못 하세요. 책임질 수 있으면 얘기하세요.

○소위원장 진성준 책임을 막 물으시니까 그렇지.

이소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소영 위원 이번에 추정 사업안들 보니까 모태펀드가 몇 가지 좀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이것도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토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당 간사님 동의하신다면 이 K-콘텐츠 펀드 출자 포함해 가지고 모태펀드는 일괄 보류하고……

○조정훈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집행을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소요 이런 것들 좀 면밀하게 따지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때 이 모태펀드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펀드가 자펀드 결성하고 그다음에 투자되고 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 모태펀드는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것 논의를 하다가 일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논의는 어디 온데간데없어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넣겠다라고 오면…… 다른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논의했던 그런 기준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저는 문화 콘텐츠 펀드는 조금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BTS 공연했지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요. 이번에 부가가치가 얼마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번에 언론에 의하면 1조대라고 하고요.

○안도걸 위원 미니멈 1.2조, 2조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입증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불을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인 모태펀드로 볼 일이 아니고 우리의 전략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게 보여줍니다.

○박형수 위원 그 의견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모태펀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번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래요?

○이소영 위원 중기부에도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중기부가 좀…… 중기부까지는 거의 없고요. 마지막이 중기부인데……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산업적 차원의, 금융적 차원의 펀드 문제만 별도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같이, 모태펀드 사업은 다 뒤로 미루자 이런 말씀인가요?

○조정훈 위원 모태펀드라는 예산 지출 방식이 지금 추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소영 위원 지난번에도 모태펀드를 모아서 일괄 심사를 따로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태펀드도 나오면 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7페이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인턴십 기회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단기 일자리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내에 예술활동증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 대상 복지지원 사업 참여에 기본 자격 요건으로 활용되는 증명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 폭증을 우려해서 인건비 등 예산을 추가 편성했으나 이는 행정 효율화로 해결해야 하고 추경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증액분 7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두 번째 칸의 네 번째 줄입니다—처리 인력과 심의비 등 추가 지원을 위해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안 7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결국은 신청자가 예술인으로서 지원 등등을 받기 위한 증명이 수요가 많아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7억 중에 상당 부분이 보니까 심의비 4억 원이더라고요. 지금 심의하는데 심사 인건비, 심사위원 수당이지요, 이게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4억 원을 더 들여서……

그러니까 심의비라고 하면 단가를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하는 횟수를 많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횟수가요 지금 1월에서 3월까지 4만 3000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1만 7000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확 폭증을 하니까 이게 심의 횟수가 엄청 많아졌고……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이 없었다고 전제하면 기존에 2026년 저희가 동의해 드린 예산은 언제쯤 소진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4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시다, 저희들은.

○조정훈 위원 올 4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작년에 이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술계가 어려워지면서 예술활동증명 하려는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늘리는 건 아닌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단가 아닙니다. 심의 처리하는 인력을 늘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사례비를 늘리고……

○조정훈 위원 심의하는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고?

○박형수 위원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뭐라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면 격년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계시는 예술인들이……

○조정훈 위원 그것 받고 싶어서 다들 지금 지원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것도 없어서 받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안 유지, 원안대로 합시다.

○소위원장 진성준 원안 유지합니까?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원안 유지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세출, 감·증액사업이 2건 있습니다.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 확산 사업은 콘텐츠코리아랩, 지역거점형 기업지원 센터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결여돼 있고 단순한 기관 운영비 보전 성격이 강하므로 증액 분 89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 확산 사업에 정부안 89억 원

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이것은 청년 일자리 사업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닙니다. 이것 창작·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보니까 콘텐츠코리아랩이라는 곳 15개 또 기업지원센터 열한 곳에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서 89억 원 요청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 말인데 단가 인상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콘텐츠코리아랩에는 15개소에 5억으로 돼 있는데 3억을 증액해서 8억씩……

○조정훈 위원 그냥 그 5억 원을 주면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알아서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운영비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 창작·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에 있는 콘텐츠 산업계에 직접 가는 돈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미 본예산에 콘텐츠코리아랩에는 5억 원, 기업지원센터에서는 4억 원씩 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랩이나 지원센터에 더 많이 운영사업비를 주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3억 씩 가는 게……

○조정훈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요는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계속하고 있었고요. 이게 창작·제작 지원……

○조정훈 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게 계속해서 지금 지역에서 콘텐츠 창작·제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곳당 3억, 5억에 불과하니까 최소한 8억은 맞춰 주자 이렇게 지금 늘려 보자는 취지입니다.

○조정훈 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소위원장 진성준 담당 국장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문화산업정책관입니다.

작년도의 경쟁률은 CKL 같은 경우는 평균 5.2 대 1 경쟁률을 보였고요. 지역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5 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콘텐츠코리아에 지원 요청을 하면 이것을 해서 교육 일자리 제공해 주고 콘텐츠 제작해 주고 투자·홍보·마케팅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예, 공모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배분을 하게 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빚을 안 내니까 그냥 쓰겠다는 거 어떤 분이, 아까 부처 들

어오셨던 분이 한말씀해서 제가 한말씀하려다가 참았는데 우선순위를 나눔에 있어서, 저는 백번 양보해서 유가 문제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시급한 문제, 좋은 일자리라는 전체로…… 지금 이것은 기업들 지금 도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예, 지역 콘텐츠 기업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역 콘텐츠 기업은 이런 데서 돈 받고 인턴 대준다고 또 국가에서 돈 주고…… 도대체, 이런 지원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지역은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요. 전체 콘텐츠 매출액 중에서도 서울이 60%, 경기도가 한 20% 해서 전체에서 서울, 경기도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 빼고 경기도 지원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경기도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뭐 그래요? 서울하고 세종만 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일단 포함은 돼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처리하실 문제지 이게 추경 사안이라고……

○박형수 위원 이것은 삭감하는 게 어때요? 이것은 기관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 모든 기관의 운영비를 다 올려 줘야 돼요. 물가가 오르면 어쨌든 간에 무슨 기관이든지 기존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보다는 다 경비가 더 들 것 아닙니까?

○조정훈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왜 굳이 이 지역 콘텐츠 사업의 증액을 요청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역의 콘텐츠 기업이 아까 국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CKL하고 기업지원센터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굉장히 그 지역에는 아주 큰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늘려 줘도……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예산으로 한 센터당 몇 개 기업이나 지원하고 계십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한 기업?

○조정훈 위원 예, 한 센터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한 70여 개 기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부산·대구·광주 콘텐츠코리아랩에서 70여 개 기업씩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더 들어가면 70여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한 70여 개 또 비슷한 숫자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온 거하고 거의 동일한, 거의 100% 예산 인상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추경을 올린 또 하나의 이유는 24년도 이후에, 25년부터 한 53억 정도가 감액이 돼 가지고 26년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콘텐츠코리아랩하고 이쪽의 의견 수렴을 매년 하고 있는데……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봤더니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준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이것의 우선순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견 보류해서……

○이소영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소영 간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이견 지금 조정을 좀 하는 게 좋겠고요. 야당 위원님 들께서 이게 또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고 지금 추경안 코리아랩 부분이 15개 곱하기 3억이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기업지원센터 부분이 11개 곱하기 4억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건대 코리아랩에서 지금 15개가 돼 있는데 이 중에 5개를 줄이면 여기에서 15억이 나옵니다,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부분에서는 6개를 줄이면 24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39억 정도를, 두 가지 종류 사업에서 5개 줄이고 6개 줄여서 39억 정도 감액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간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소소위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일단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5개를 줄이고 6개를 줄이는……

○소위원장 진성준 줄이자고 하시니까 그렇지요, 뭐.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형수 위원 다 줄이자고요?

○이소영 위원 둘 다 일부씩 줄이는 건데 홀수여서 사실 이걸 반으로 줄일 수는 없고 단가가 예컨대 3억에서 1.5억이면 어디 한 군데만 또 1.5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반이 아니라 적절하게 단수 차이가 나지 않게끔 개수를 조정하자는 취지거든요.

○소위원장 진성준 잠깐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임미애 위원님 하세요.

○임미애 위원 이것 간사님이 제안해 주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줄이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개소라는 게 아까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또 공모 형식으로 이게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지역 간에 경쟁을 붙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는 실제로 운영비가 아니고 직접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보류를 하더라도 전액을 반영시켜 주는 방식이 좋겠 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제가 이 사업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코리아랩이나 기업지원센터에 예산이 내려가면 그 코리아랩이나 기업지원센터가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해

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업 아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문화예술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조정훈 위원 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기업과 사업가들한테 갑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기업과 사업가들에게 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콘텐츠코리아랩이란. 물론 개인 콘텐츠 업자일 수도 있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지역 회사.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지역 회사에 내려가서 결국에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져요? 지역의 문화예술활동가들이나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 음반 제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소위원장 진성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동 사태나 이런 걸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데가 그런 문화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소영 위원님께서 조정을 하자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15개 그리고 11개가 있잖아요. 지금 골고루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몇 개 지역만을 선택한다라는 건 평가를 해야 되는 등등등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은 다 하되 그 지원 단가랄까요, 사업 물량이겠지요, 물량을 조금 줄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한 기업당 지금 3억씩 더 추가 지원하자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한 장소당 3억씩 더 주자는 건데요. 그걸 액수를 좀 줄여 주시는 게……

○소위원장 진성준 오케이. 2억씩 지원하는 것은 어때요, 2억씩?

○박형수 위원 아니, 뭐 흥정하는 것 같아서……

○소위원장 진성준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자들에게 주는 돈이잖아, 기업들 돈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게끔, 그네들이 창작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소영 위원 1억씩 줄이면 감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진성준 2억, 2억.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1억씩 줄이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억씩 줄이면 콘텐츠코리아랩이 15억 감액되고 기업지원센터는 11억 감액돼서 26억 감액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26억 감액.

○안도걸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하세요. 26억 갑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국민문화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기획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추경 확정 전에 사업 규모를 이미 확대 집행 중이어서 예산 운용 원칙에 위배되고 추경 취지에도 부적합하므로 증액분 47억 8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원 확대를 위해 28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역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공연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춘마이크 사업에 정부안 47억 8300만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전문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화가 있는 날이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이었는데 지금 4월 1일부터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원래 예산은 선집행 금지의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정훈 위원 위배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지금 국회에서 추경 심의 확정 전에 사업 규모를 키워서 집행하신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생각은 없었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추경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니요, 있으면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양하게 네 번을 채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고유가로 지역 예술인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가니까 추경을 해서 이 네 번을 태워서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매달 할 걸 매주 하는 그게 문체부의 결정이라기보다 국회의 결정이니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추경 없어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으리라 짐작해요. 설마 추경 없다고 법이 바뀌었는데 ‘못 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 하니까 ‘잘됐다, 여기다가 예산 좀 요구하자’ 이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화예술인……

○조정훈 위원 그런데 자꾸 문화예술, 그러면 전체 예술 다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답변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차관 답변해 보세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 47억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양방향 지금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추경이 없이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제대로 정말 정공법으로 하시면 내년 2027년부터 문화의 날을 매주 행사하기로 법이 바뀌었으니 적절한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법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단가 해서 했겠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을 한다고 그러니 47억 원을 해 가지고 더 내실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추경의, 지금 몇 번 얘기해서 입이 아플 정도인데 추경이라는 것의 긴급성과 시급성에 있어서 이 문화의 날을 매달 하는 것에서 매주로 확대 운영하는 이게 과연 긴급한 예산이라고 보이는지……

기예처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법이 통과된 것하고요 문화의 날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법은 법대로 통과되고 이 사업이라는 게 꼭 문화의 날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청년 공연자들이 활동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청년 공연자들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목적이 지금 통합돼 있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차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러면 문체부 예산 중에 청년 활동할 수 있는 예산 다 찾아 볼까요, 얼마인지? 하루만 주시면 제가 수백억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삭감하셔야 돼요.

○소위원장 진성준 이소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박형수 간사님 말씀……

박형수 간사님 보니까 이것 반대 안 하셨구만.

○박형수 위원 이름을 나눠서 넣은 거야, 나눠서.

○이소영 위원 사실 이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의결한 사업인데요. 문체위는 여야가 사실 토론을 깊이 해서 합의 처리를 한 의결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의 증액 의결을 고려해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시거나 그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시면 보류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일단 보류로 합시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가면 삭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삭감합니까? 유가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한 단계만 건너뛰면 다 피해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 지원해 주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급하고 절박한 곳이 있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삭감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26.2조 더 순증할 겁니까, 위원님들?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삭감을 해야지. 정말 화물차 운전자, 농어민 면세유, 지금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지적된 부분 많잖아요. 이 재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하려면 삭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삭감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삭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추경 없어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했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해 가지고 잡자기 뭐가 크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임기근 차관, 반드시 삭감해야만 증액 재원이 마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형수 위원 부채 내면 되지요. 국가부채 또……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국가부채 말고 지금 초과세수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

차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추경 같은 경우도 감액 재원 내 증액이 기본원칙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거 보류해요?

○박형수 위원 깎아도 되지……

○소위원장 진성준 아까 임기근 차관 말씀은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공연 같은 것을 전혀 못 하게 되니까 공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박형수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소위원장 진성준 그리고 심지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합의로 증액 요청을 해 온 사업이거든.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종합을 해야 되지 한 위원회에서 온 것을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소위원장 진성준 종합해야지요.

○박형수 위원 아니, 지금 더 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피해 때문에.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보류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김대식 위원 보류해서 검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 감액사업 3건, 감·증액사업 3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술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기금 재원이 과도하게 소진된다는 점, 추경의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증액분 5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정부안 500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예술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져서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 관련된 지출을 먼저 줄이는 게 사실이니까 충분히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정책적 수단에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리면, 이게 직접용자 사업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일대일인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얼마를 드리나…… 500억 하면 500억 원어치 용자 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차보전 같은 이자 지원, 민간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 드리고……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이거 뭐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원리금 이자에 갚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금융의 유동성을 이용해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똑같은 500억 원 규모의 대출 효과를 12억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80억 이상의 예산을 좀 더 급한 데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렇게 운용 방식을 민간금융을 이용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산업 성격상 워낙 영세해서 민간기업이 은행의 대출을 통과해 가지고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영세한……

○소위원장 진성준 담보가 없잖아요, 담보가.

○조정훈 위원 그러면 담보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의 부실률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것은 용자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위원님.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정부도 기업에 담보 없이 지금 용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것을 은행에다가, 금융권에다가 한 군데를 정해서 500억을 주면 거기서 운용비로 아마 1%……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비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정부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위탁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 같은 경우 시중 이율의 절반을 매몰비용으로 넣지만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부담하고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이 유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용자를 저희가 희망……

○소위원장 진성준 그렇구나. 이를테면 금융기관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거네요, 이

사업을 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그 전문성을 가지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절반은……

○조정훈 위원 그런데 좋은 취지입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자기자본이나 영업이익을 깎아 먹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팔 비틀어서 억지로 하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인데 적정 이익을 보장해 주고 사업을 동참시켜야지 이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지금 현재 200억……

○조정훈 위원 제가 제 발언을 끝낼게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술기업들이 영세성이 있다는 건 알겠고요. 그러면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하든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취지를 그냥 이렇게 직접융자 방식으로…… 당연히 금융기관 끼고 하시겠지요, 설마 문체부에서 금융 하는 사업을 또 창구를 열겠어요? 그건 당연한 사업 구조인 거고. 기존에 많은 정부들이 하는 일대일 직접융자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왜 다른 많은 부처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솔직히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영세기업이 예술계에만 있겠어요? 그러면 중기벤처부는 왜 이차보전 하겠어요? 중기벤처부에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는 왜 그러겠어요?

○소위원장 진성준 조금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원장 진성준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조정훈 위원 사업의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건 어렵다고 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안도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도걸 위원 이차보전 방식 있잖아요, 조정훈 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차보전이 통하는 데가 있고 안 통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하는 데는 어떤 데냐면 전형적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지요. 거기는 기존에 기보라든가 신보 등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다 있어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고 기업이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할 수 있지만 예술계 보면 말이 기업이지 실은 아직 전형적인 어떤 기업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또 회계라든가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인프라가 조금 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차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아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수수료를 좀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해 온 대로, 예술진흥기금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기금 사업이라 정책금융으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아까 실무 국장님 일어나셔서, 금융기관 팔 비틀어서 이 사업 맡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우리가 본사업 200억을 공모를 통해서 2개의 시중은행이 참여해서 동등한 계약을 해서 지금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거기에 지금 500억을 더 마련해서 기금 규모를 키우자 이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작년 수요조사 했을 때 한 1450억이 됐는데 본예산에 200억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500억을 증액해 주신다면 한 50%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걸로……

○소위원장 진성준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입니까?

○임미애 위원 저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금융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원장 진성준 어떠세요?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소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보류해서 논의해 보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 보류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잠깐만.

저는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요, 예술을 과거에는 보조금 집행 대상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예술을 산업으로 보고서 금융을 통해서 성장시키겠다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안대로 집행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합의가 안 되니까 보류하는데……

지금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8시간을 더 해야 1회독을 한다고 그러네요.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핵심만 질문해 주시고 핵심 의견만 개진해서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1페이지의 2번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은 공연예술티켓 구입 시 1만 원 할인쿠폰 50만 장을 일반국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문화 향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추경 요건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증액분 51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공연 분야의 수요 위축 현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에 정부안 51억 원이 유지되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본예산이 3000억이지요? 3276억 원인데 지금 50억 증액 요청하시는 거지요? 틀립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맞아요,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51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51억 요구한 겁니다.

○조정훈 위원 51억 요구한 건데 본예산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본예산은 없습니다. 신규……

○조정훈 위원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 그렇군요. 내역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인기 공연이 있고 비인기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기 공연은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막 허다한…… 그리고 순삭, 매진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1만 원 더 주는 게 과연 문화소외계층으로 갈지 이미 문화를 많이 누리고 있는 중산층 이상으로 갈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대작 IP를 갖고 있는 뮤지컬, 20만 원에서 30만 원 대 하는 것은 이런 1만 원 정도로 그 소비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팬덤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 하시는 분들은 대개 소극장에서 3~4명 정도가 공연하는 그런 공연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대개 그게 한 3만 원에서 한 7만~8만 원 사이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세요?

소극장, 소극장 지원사업이에요.

○박형수 위원 문체부 그것……

또 똑같은 말 반복되는데, 어제 예결위에 아마 문체부 직원들도 참여했을 겁니다. 어제 다른 부처의 장관들, 일부 부처 장관들 얘기하는 것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쪽에서는 직접적인 피해 입어 가지고 이러는데 예산 당국에서 그걸 안 넣어줘 가지고 주무부 장관으로서 얘기도 못 하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해 온 이 안들은 정말 하나같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이게 들어와도 될까 말까…… 사업성도 검토해 봐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잔뜩 지금 해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문체부 스스로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중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좀 가려내서, 이것은 이러이러니까 이건 꼭 해 주세요…… 몽땅 다 그렇게 구성해 왔어요.

저는 이 사업도 그렇고 문체부 사업들은 좀 보류로 해 놓고 문체부 자체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진성준 보셔서 할 만한 것은 오케이를 해 주셔야지 문체부 사업은 그냥 다 보류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보니까 벌써 조정훈 위원님은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이것 해 줄 만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먼.

○조정훈 위원 아니, 왜 저를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 보류.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체부……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중립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소위원장 진성준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과거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가 이것은, 하나를 가지고 논의를 해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진행을 방해하는 건 위원장님이네요. 계속해 가지고 이것을 ‘양보해라.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박형수 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답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유의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하면 이번 추경은 조금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지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또 정부 측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거라면 결론을 내시려고 그러신 거지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 또 거꾸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아니, 자꾸 우리가 삭감 의견 낸 걸 그것 철회하고 수용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삭감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얘기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형수 위원 지금 삭감 의견 뭘 받아들인 게 있어요?

○소위원장 진성준 박 간사님, 그렇게만 얘기하지…… 벌써 삭감 의견이 3건이나 받아 들여졌잖아요.

○박형수 위원 2건, 일부……

○소위원장 진성준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받아서 보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소영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러면 야당 의견 안 받고 보류하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겁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로 캄 다운(calm down) 하고.

이소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소영 위원** 지금 문체부 사업 중에 감액 의견 안건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런데 문체부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냥 소소위로 넘기게 되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업이 소위의 논의 없이 다 소소위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박형수 위원** 아니아니, 내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소소위로 넘어가는 안건들에 대해서 문체부 스스로 정리하라는 거지 문체부 것을 다 넘기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몇 가지 덩어리는 저희가 일괄 보류하기로 했지만 또 여기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화예술 향유지원의 경우에도 야당에서 사실 전액 삭감 의견을 내시킨 했지만 이 정도 조정안이라거나 또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일부라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시간이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진성준** 예, 그러시지요.

○**김대식 위원** 문체부 있잖아요, 박형수 간사가 이야기했듯이 문체부가 진짜……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그냥 추경할 때 이때 한번 밀어 넣어 보자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를 엑기스로 뽑아 가지고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문체부 것만 하루 내내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용하고 이런 부분은…… 돈 있으면 다 해 줘야지요. 돈 있으면 왜 문체부만 해 줘니까? 전 부처를 다 해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우리가 보류를 하고 여기서 위원장님하고 간사 두 분이서 마지막에 의논할 테니까 필요한 1순위·2순위 순위를 적어 가지고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지. 안 그렇겠어요?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이 사업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3번, 예술인력 육성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단기 일자리 사업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2페이지 4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융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금융혜택이고 추경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증액분 3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열악한 예술계의 현실을 고려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 번째 칸의 원안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설명드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경 증액분은 앞서 보신 사업의 확대를 전제로 한 부수적 행정비용이므로 7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두 번째 칸입니다—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먼저 4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을 위해 정부안 320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5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사업운영비 정부안 7억 8000만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문체부에서 예술인 사랑은 무죄입니다.

다만 국가 정책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술인이라는 자격만으로 1.95%의 초저금리 전세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고유가로 시달리는 분들보다 예술인이라는 자격만으로 1.95% 초저금리 전세대출 지원하는 게 과연…… 그러면 다른 직군들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도와드리는 건 동의하지만 어떻게 예술인이라는 자격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도걸 위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기존의 어려운 예술인들에 대한 생계자금을 융자해 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융자해 주는 거고,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의 조건이 완화가 되는 겁니까? 금리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동일 유지됩니다.

○안도걸 위원 똑같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긴급생활자금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전세자금은 중위소득 120% 미만……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금리, 과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국회에서 다 승인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자금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2배 이상, 2배 가까이 할 정도의 큰 수요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아니면 좀 수요를 조정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가 2월 달하고 3월 달에 대출을 실행을 했는데,

한 달 간 대출 모집을 했는데 5일 만에 그 수요가 다 충족이 돼서 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너무 당연하지. 1.95%인데 무조건 하지.

이것은 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84페이지, 6번 예술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추경 편성 목적과 피리가 크고 연내 집행 실효성이 저조하므로 증액분 4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의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창작 지원 사업의 정부안 40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지금 본예산에 비해서 거의 94% 증액의 추경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독립예술영화, 중예산 영화 제작하는 건데 과연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금……

○**조정훈 위원** 영화 창제작 지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84쪽, 6번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40억 삭감 저희 당에서 요청을 했는데요. 시각예술창작육성하고 공간예술창작육성하는 예산들이 37억, 거의 400억, 135억 이미 다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다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지금 현재 집행률은 20% 선이고 추경으로 한 사업들은, 공연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동안 동기 대비 한 12% 가까이 예매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공연 분야의 제작지원비 상승에 따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부분하고 시각예술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미술관들이……

○**조정훈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다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 할 때 단가나 양을 올려 달라는 게 맞지 이 시급한 추경에서 지금 상황이, 문화예술 환경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부분 삭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얼마나 삭감할까요?

○**조정훈 위원** 그건 간사님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도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기존 사업의 양을 조금 늘리겠다는 건데 시각예술 같은 경우에는 36억 원에서 10억 원을 더 없는 거고 공연예술창작은 367억인데 10억을 늘리겠다 하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특별한 소요가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저희가 특별한 수요는, 지역에서 1차 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 지원 신청 부분이 한 4.1 대 1 됐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특별한 수요가 있기보다는 지금 일반적으로 신청이 많고 하니까 늘린 것 같은데 이것은 약간 조정을, 한 절반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20억 감액 어떻습니까?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억 감액 그렇게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영화발전기금 지출 감·증액 사업 2건이 있습니다.

1번 영화 창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영화제작 지원 사업은 창작 인력 및 중소 제작사의 영화제작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추경 목적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증액분 384억 9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영화제작 지원 사업 정부안 384억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계속 말하지만 문체부 사업에서 아까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금 독립예술영화,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하자는 건데…… 아까 51억이었나요, 1만 원씩 문화예술상품권 주는 것?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조금씩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추경하는데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거의 본예산 대비 94%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맞지요, 이거 숫자가 틀린 건 아니지요? 요구한 예산이 본예산 대비 94% 증액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걸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화산업 누가 육성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만, 중장기 사업이고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정도면 저는 추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간사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아까부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 의견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만 원이라는 돈을 예술인에게 주었을 때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쓰임이 다르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단돈 1만 원

을 예술인에게 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게 예술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낸 창작물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게,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인들이 어렵다는 거 굉장히 다들 잘 알고 계시고 또 문체부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부처로서 저는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당연한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화와 관련돼서는요 제가 언젠가 강의를 들으면서 K-컬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K-컬처의 핵심이 되는 게 영화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 공모를 받으면…… 혹은 26년도에 영화 제작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건 정도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현재 제작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거의 한 40편 착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24년도에 17편인가 그랬었습니다, 제작 착수가.

○임미애 위원 17편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니까 엄청 줄어서 지금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임미애 위원 지금 한 17편 정도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면 영화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거의 붕괴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이게 지금 중동 전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K-컬처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영화에 대해서는 이게 K-컬처의 항공모함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K-문화든 의류든 팝이든 미술이든 그 시작이 영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적은 예산이지,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 부처가 요구한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절충의 여지가 있나요?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지금 영화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특히 독립영화, 중예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진 예술인들의 삶터인데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다는 건 사실이고 이러한 과감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본예산이 330억인데 추경에서 정말 아주 의욕적으로 380억 했는데 소요를 좀 줄이시지요? 절박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고 다른 소요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사실 저희들은 이거보다도 더 많이 냈었는데 줄여서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된 건데 혹시 10% 정도만 감해 주시면……

○소위원장 진성준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창동 감독 그러면 문화부장관도 했던 분이고 베니스영화제 이런 데서 상도 받은 세계적인 감독이거든요. 그 감독이 영화제작비 80억이 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넷플릭스를 갔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문화의 저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왕과 사는 남자’가 110억을 들인 중예산 영화인데 그중에 40억 대를 투자를 받았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액수는 384억인데 중예산 영화가 보통 100억에서…… ‘파묘’, ‘왕과 사는 남자’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10%만 줄여도 이게 무려 38억입니다. 그러면 중예산 영화 하나에 들어가는 돈 정도니까 이거는 가급적 살려 주시면……

○박형수 위원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예산 때라면 지금 하시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대한민국 K-컬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인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전쟁으로 인한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데 영화산업 진흥책을 가지고 논의한다라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농민들은 비료대하고 농약대, 면세유 이게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농사를 짓네 못 짓네 그러고 있고 어민들은 면세유 때문에 출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 논의를 해야 됩니까? 추경이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10% 감액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게 사실은 영화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 그건 영화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 이렇게 엮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박형수 위원 보류하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예,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2번 영화정책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민에게 6000원 상당의 영화 관람료 할인지원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추경 목적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증액분 361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정부안 361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사실은 이것 아까하고 비슷한 취지의, 조금 다른 각도의 사업인데 같이 보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론 대신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 감액사업 4건, 감·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관광두레 조성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26억 원 감액의견을 그리고 예결위에서 56억 7000만 원 전액 감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청년 관광두레 육성사업에 상임위안 30억 7000만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26억 감액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상임위 의견대로 받아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상임위 감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가만있어 봐, 이것 내가 전액 감액의견 냈는데?

○소위원장 진성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하자고 그랬잖아요.

○박형수 위원 내 의견은 상임위 의견에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진성준 왜 무시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물어봐야지.

○이소영 위원 제일 중요하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제일 중요하지. 제가 무겁게 듣지요. 간사님 보류하자고 하면 제가 지금 다 보류하잖아.

○박형수 위원 무겁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소위원장 진성준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상임위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의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25억 원 감액의견을 그리고 예결위에서 360억 원 전액 감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에 상임위안 281억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아마 이게 금액에 관계없이 지난 이틀 동안 꽤 많이 논의했던 핫이슈인데요. 위원장님 토론을 원하시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조율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고 동의 안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중화권으로 한정하지 말고 글로벌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으로 국가에 관계없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박형수 위원** 변경의견까지 포함해서 보류하고 논의를 해 보십시오.

○**안도걸 위원** 대답해 보세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수용 의지를 한번 볼까요?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는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글로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박형수 위원** 보류하고 논의를 해 보시지요.

○**이소영 위원** 중화권이 아니어도요?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좀 해 보자고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한지 논의를 해 봐야 되니까.

○**안도걸 위원** 동의하시지요. 글로벌 쪽으로 바꾸는 형태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

○**박형수 위원** 아니,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 의견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 보자고요.

○**이소영 위원**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안도걸 위원** 동의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위원장님, 보시면……

○**소위원장 진성준** 글썄,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지적해 왔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잖아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을 새롭게 갖고 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항공·항만에 중국 부스·환영행사 등인데 그거를 글로벌로 바꾼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동의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소영 위원** 국적을 제한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박형수 위원** 환영을 어떻게, 국적 제한 안 하면 ‘모든 외국인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소위원장 진성준** 글로벌 단체관광객에 한해서만.

○**이소영 위원** 단체관광객으로 어차피 이게 다 여행사를 통해……

○**박형수 위원** 어쨌든 문체부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사업안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뭘 얘기할 것 아닙니까. 가져와서……

○**소위원장 진성준** 좋습니다.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소위원장 진성준** 차관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 겪으면서 저희들도 아예 글로벌로 갔으면 이런 논쟁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지금 이 금액을 인정해 주시면, 현재 시장 포션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비율대로 배분을, 작년 25년도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마케팅 활동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오케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돌리시고, 보류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 그게 비율대로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 이 사업 원래 중화권이 왜 나왔냐 하면 중국인들이 중동에 가던 관광객들이 못 가고 이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유치하자 이런 목적하에서 중화권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율대로 배분해 버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중동전 사태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못 가거나 안 가는데 어디가 그런 데인지 그거를 선별해 가지고 거기다가 포션을 많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사업이 실효성이 있지요.

○이소영 위원 아니,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안 가게 되면서 이 사업이 기획된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중화권에 한정해서 문제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중화권에 한정하는 것이 현재 외교나 대외적인 여건상 마케팅 효과는 가장 좋지만 그러나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한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박형수 위원 한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해. 동의하는데 그것을 잘 설계를 해 오라 이런 취지인데……

○소위원장 진성준 사업계획을 변경 설계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박형수 위원님의 의견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잘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보류.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3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사업에 대해 상임위가 13억 6500만 원 감액의견을, 예결위에서 100억 원 전액 감액의견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사업에 상임위안 86억 3500만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임위 삭감만 수용하고 싶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상임위 제안대로 삭감을 하면 어떤 사업이 빠지는 겁니까, 본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크게 빠지는 사업은 없고요, 인센티브 주는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그러면 팔십몇 억인데 이것 다 진짜 쓰실 수 있으세요? 지금 2026년도 10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얼마나 쓰셨습니까, 집행률이? 본예산도 있잖아요, 지금 이것. 그렇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지금 1분기밖에 안 지났으니까.

○조정훈 위원 그래도 얼마 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집행률은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몇 %냐고요, 문제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소위원장 진성준 그것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집행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15 대 1, 30 대 1, 7 대 1, 세 가지 사업이 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 통과가 되는 즉시 사업 공모를 통해서 기존과 동일한 평가 절차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을 일부라도 해 드리면 결국 이 사업에 선정되는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에 대한 단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몇 개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은 65개사 그리고 관광 플러스 테크 사업은 8개 그리고 관광 선도기업 글로벌 육성지원 사업은 10개사가 추가됩니다.

○박형수 위원 일단 차관님, 그러면 이것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확신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요?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책임질 생각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상임위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상임위 의견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사업은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보입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100억 원 감액의견을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2800억 원 전액 감액의견이 있고 반면 지원 확대를 위해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답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상임위안 2800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삭감액만 수용하고 싶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 융자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그 비슷한 거고 관광산업 그러니까 여행사 등등에게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도 담보 문제 때문에 이차보전이 안 됩니까? 이 이자율은 얼마로 하실 겁니까? 무이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96%,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의 이자율입니다.

○임미애 위원 2.96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2.96%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업체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융자액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다 다른데요. 저희들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 건립하는 건 150억 원 이내……

○조정훈 위원 아니, 업체당.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업체당이요? 지금 중동 사태 피해 관광업종에는 2억 원씩 약 1150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에는 2억 원씩 약 200개 업체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스타트업은 또 뭘니까? 저는 중동 사태 피해 관광업종 융자지원은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랑 스타트업을 섞는 건 아니지요.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또 스타트업 운영을 지원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은 빼시는 걸……

이게 얼마입니까, 스타트업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400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걸 삭감하시면 어떠세요? 본예산으로 하시지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

이 사업이 26년 본예산 때 있었지요? 거기서 30억 원 감액 의결된 것 아니에요, 이것?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30억 원 감액됐습니다.

○박형수 위원 30억 원 감액 의결된 걸 추경으로 2800억을 증액해 가지고 와요? 본예산 심의를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감액될 때 제가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금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주장하실 때 그래도 다른 지원 예산보다는 액수가 큰 용자 예산에서 감액하자 해서 30억 원 감액한 걸로 저희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어쨌든 30억 원을 감액을 했고 감액하지 않았더라도 본예산이 유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2800억이나 추경에서 증액해 오면 본예산 심의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 본예산 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완전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소위원장 진성준 이소영 간사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 부분 일정한 감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류하고 상세한 내용을 박형수 간사님과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특히 스타트업 지원은 감액하는 거 동의하신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게? 2027년 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데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감액에 동의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시급하게 다른 문화예술이나 체육 등등 증액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감액된 만큼 인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100억 감액하자고 합의해서 올라왔는데 조금 더 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정훈 위원 예, 그중에 스타트업…… 부처도 지금 스타트업 운영 지원 500억은 삭감 동의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진성준 동의한 건 아니고.

이것은 보류해서 더 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이 2개 있는데 각각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내역사업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5억 원의 감액의견을,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62억 원 전액 감액의견과 10억 원 감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상임위안 57억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거는 저는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행 사업 지원의 명분은 중동 사태로 인해서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행 수요는 자연스럽게 국내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요가 늘고 있다는 뉴스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고요.

그러면 이미 국내 여행이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게 지금 수요를 자동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보니까 숙박할인권 20만 장 40억, 근로자 휴가 지원 10만 명 100억,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야말로 진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시급성이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문제 제기인데 사실 우리 예결소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 부처를 굉장히 촉박한 시간으로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상임위원 문체위가 예결소위를 수 시간 동안 문체부 예산만 심의하고 또 여야가 한쪽의 의견만이 아니라 합의해서 이 부분을 5억 원 감액으로 아마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판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간사 위원님 의견을 무조건 듣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이것 전액 반대의견을 냈는데 내가 막 묵살하면 되겠나?

○**조정훈 위원** 저는 이소영 간사님께서 합리적으로 이런 제안을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이 없었던 사업도 저희가 삭감을 진행했고 동의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간사님 말씀에서 상임위의 그 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서 일부 삭감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진짜로 여행 사업의 국내여행 역량 강화 사업이 지금 가장 시급한 예산 사업이냐, 추정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이소영 위원** 조정훈 위원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건대 조은희 위원님께서 10억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었거든요. 조은희 위원님 안대로 10억 원 감액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절반 감액의견을 내려고 그랬더니 그걸 또 조은희 위원님 걸 받네.

○**조정훈 위원** 이게 얼마지요? 60억인가요?

○**박형수 위원** 62억인데 그러면 20억 감액합시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20억 감액하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이 사업은 여러 연구원이나 재정 당국이나 저희들이나 시행해 오면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투자 사업입니다. 이게 거의 9배의 소비승수효과를 내는 사업으로 판명이 됐고 그래서 투자하는 만큼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에서 봐 주시기를……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지금 인구감소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국내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다들 예측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류비가 올라 가지고 해외로 가는 여행객이 줄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국내관광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정훈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제도를 자꾸 시행하면 이게 선거용이다, 매포용이다 이런 비판을 자꾸 받게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면, 이게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국내로 돌아오는 부분 플러스 이거 플러스 해서 좀 활성화 시킨다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아니면 뭐 20억 정도 감액해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 20억 정도 감액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게 의결합시다.

○소위원장 진성준 20억 감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상임위 감액안 포함해서 20억을 말씀하시나요?

○이소영 위원 예, 포함해서요.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20억 감액.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맨 아래칸에 또 다른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국내 숙박 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기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이미 국내 여행이 유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증액분 112억 4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숙박할인권 추가 지원을 통해 고유가 부담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안 112억 4000만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것도 결국 얼마 삭감할까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는 본 예산이 약 39억이었는데 지금 112억 요청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 예산의 3배를 지금 요청하시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좀, 최소한 반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아까랑 똑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사업……

○소위원장 진성준 이 사업도 20억 감액해서 정리하지요. 어떻습니까?

○조정훈 위원 이게 얼마지요, 지금? 추경이 80억 요청하신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12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112억을 요청하신 겁니까?

○박형수 위원 본 예산이 지금 39억인데 추경안에 증액을 112억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 매표용이라는 얘기 안 들겠습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오히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매표입니까, 매표는? 저희들 예산편성 안 해도 돼.

○박형수 위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줍니까? 정부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지방선거를 안 합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다 하는데.

○이소영 위원 야당에서 주셨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정권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게.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야당의 요구로 편성했다고 하고 증액했다고 하면 되지.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도걸 위원 숙박할인권 이것은 여행하시는 분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숙박할인권은 저희가 항상 경기가 어려울 때 또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꼭 그때그때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이걸 다 검증이 된 거지요. 그렇지, 이게 굳이 이번에 선거를 의식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해 왔고 또 추경의 단골 메뉴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이것은 원안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보류하는데, 이 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경기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편성했습니까? 그때도 경기가 엄청 나빴고 지금 경기 회복시켜야 되겠고 그런 목적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편성 액수가 39억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다가 112억 원을 증액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한 말씀……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이 사업 보류합니다. 다음.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체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기타특이사항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대다수 콘텐츠 기업이 영세해서 참여 유인이 저조하므로 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업 내용 변경을 하자는 조계원 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 정부안이 있고 밑에 조정 이후의 내용이 서로 다른데 신설되는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의견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이 사업도 아까부터 꼭 얘기해 주신 단기일자리 사업이어서 보류하시고 종합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단기일자리예요?

-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예.
-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
- 조정훈 위원 문체부 다 했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문체부 끝났습니다.
-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생하셨습니다.
-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쉬면 안 됩니까?
화장실만 좀 갈 시간 주십시오.
- 소위원장 진성준 10분만 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인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차관님들, 관계관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박순연 기획조정실장 박순연입니다.
-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의 121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운영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관련 재원을 유류나 무기질비료 등 농업 현장의 시급한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경 증액분 706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에 대상 지역 확대 및 국비 지원을 상향을 위해 706억 3000만 원 증액, 1523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중동전쟁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경 예산이 원안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 박형수 위원 이걸 제가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이 워낙 명확하게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걸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로 다 보류를

하고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보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농지관리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상시적·지속적 행정업무에 해당하여 추경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전문성 결여에 따른 사업 효과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추경 증액분 587억 7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입니다. 연내에 전수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148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신속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온전히 농업인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김대식 위원 이게 지금 5000명을 채용해서 5888억 원을 편성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588억……

○김대식 위원 588억 원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추경에 이 정도로까지 이게 지금 급한 겁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농식품부에서 39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만 효율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단기 인력 중심으로 해서 5000명을 채용한다? 이게 지금 채용해서 농지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구조인데 이게 단기간에 가능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한 22만ha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여야 간에 의견이 크게 나타난 사업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농림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는 당초에 감액의견이 2건이 있

었는데 2건 다 철회가 돼서 감액심사 대상 사업 부처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보건복지부 순서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건복지부인가요?

○김대식 위원 해양수산부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부 측, 해양부차관입니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어제 제가 정책 질의할 때 했던 것 있잖아요. 그 부분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장관님도 들어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소위원장 진성준 감액안이 철회됐다고 하니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수고들 하십시오.

○소위원장 진성준 다음, 보건복지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51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들 인사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51페이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 사업 5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청년 단기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같습니다. 보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단기 일자리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청년 인턴 일자리로 들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아까 일괄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52페이지 2번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청년 사업은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청년에게 복지 및 진로·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청년에게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검증 절차 미흡, 직접적 해결책의 한계, 추정 편성의 시급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추정 증액분 33억 7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 지원 확대를 위해 내역사업인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3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역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경제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 예산입니다. 저희는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두 사업 모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두 사업 모두 2024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 기간이고 그리고 시범사업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전제로 2027년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빨리 가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확정이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저희 시범사업이 끝났고요. 올해 3월부터 본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끝났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시범사업 결과 은둔 성향이 20.4% 감소했고 또 사회적 네트워크는 7.9% 증가했다는 저희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효과는 입증됐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간사 위원님.

○박형수 위원 이것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원안 수용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153페이지, 3번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책임 원칙 위배, 추경 편성 요건 미달 등을 고려해서 신규 편성분 20억 6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두 번째 칸입니다—9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우리 부는 9억 7000만 원 증액이 반영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농어촌, 잠깐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아닙니다. 한 건씩만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상임위의 증액안을 받아 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원안 유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상임위안 유지를……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지금 이 사업, 의료취약지에 긴급지원하겠다는 건데 이름은 좋은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사 부족,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지는 건데 간호사를 배치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건 거지요? 의사 배치입니까, 간호사 배치입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시니어 의사라는 은퇴 의사의 배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정훈 위원 대부분은 간호사 아닌가요, 솔직히?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간호사 인력으로 해서, 지금 공보의 급감에 따라…… 간호인력, 보건의료 전문요원도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지소 운영하고 인건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잖아요, 국가재정상.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게 재정운용 원칙에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 의료취약지의 공보의 급감이 굉장히 큼니다. 올해 92명이 신규 배치됐는데 450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58명이, 전체 의과 전문의의 3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방재정을 투입해야 되느냐의 문제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추경을 안 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랬어요? 추경이 없었다면 이 보건의사 급감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저희들 지금도 시니어, 은퇴 의사를 통한 것들을 확대해서 하던 건데 지금 사업에 대한 호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침 추경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마침 추경이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의견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조정훈 위원이 간호사를 단기 배치하는 것이 의사를 배치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가능하면 의사 또는 은퇴한 의사 채용을 우선으로 한다는 이런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고 그리고 이것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어때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용하지요? 그렇게 부대의견 달고…… 원안입니까, 상임위 증액안입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원안 유지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번,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물품구입비 대비 전담인력 인건비·수당 비중이 과도한 점을 고려하여 광역 인력 충원

비용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두 번째 칸의 두 번째 줄입니다—먹거리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12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감액 제기한 4300만 원은 광역의 사람 인건비 7명에 관한 겁니다. 저희가 전국으로 개소 수를 확대함에 따라서 광역에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액보다는 원안 유지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예, 4300만 원 잘 쓰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소위원장 진성준 원안 유지합니다.

박형수 간사 위원……

○박형수 위원 잠깐만, 4300만 원 감액한다고?

○소위원장 진성준 감액했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 달라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다 살려서 원안대로 갑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박형수 위원 그런데 잠깐만 이것 하나만 얘기합시다.

물품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고 또 지역도 확대하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비가 55억 원인데 인건비·수당이 16억 사천 얼마예요.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거기 물품지원비가 작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민관 협력으로 해서 저희 110억 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뭐가 따로 110억……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신한은행에서 100억을 3년간 내기로 했고, 저희가 물품에 관해서는 민관협력이 또 있어서 이 금액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많다.

○박형수 위원 다른 더 큰 금액이 민간 부분으로 있다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민관협력으로 합니다.

○김대식 위원 민관협력에서 신한은행 빼놓고 다른 데는 없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한국청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확정된 게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궁금하신 점들은 따로 확인해 주시고, 원안대로 반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5번입니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목표 대비 채용 실

적 저조, 목표 달성 불확실 등을 고려해서 추경 증액분 3억 7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에 지역 의료인력난 상황을 고려하여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우리 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아까 저희 지적한 것에 의하면 채용 실적 저조인데, 이거 자신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은퇴 의사의 호응이 있습니다. 26년도에 84명 선정을 완료했고……

○조정훈 위원 26년? 올해인데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미 끝나셨다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26년에 선정은 됐고, 지금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194명이 신청했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지금 84명까지 선정 완료가 됐고 또 추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의사들의 호응이 꽤 좋은 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목표 대비 채용 실적은 어떤 정도인데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194명 신청 중에 전체적으로 결정된 규모는 95명이 일단 돼서……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보건복지부의 목표는 몇 명 채용이예요?

○조정훈 위원 26년 본예산에 의하면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180명이 저희들 올해 채용 목표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목표인데 지금 현재 채용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84명 선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야당 입장, 의견을 말씀 주시지요.

○박형수 위원 원안 유지합니다.

○조정훈 위원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원안 유지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원안 유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세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는 내역사업인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또 다른 내역사업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 증액이 있었으나 실행이 매우 저조했고 올해 본예산이 작년 본예산 대비 증액된 점을 고려해서 추경 증액분 99억 1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두 번째 칸의 넷째 줄입니다—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21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 예산은 일상돌봄, 긴급돌봄 두 가지로 저희가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신청한 사람이 많고 대기자가 많아서 저희는 이 예산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계속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 증액이 있었고 실행이 저조하였어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실행률을 말씀드리면 긴급은 79.8%고요, 일상돌봄은 83%입니다. 그래서 저조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정훈 위원 칠십몇 %가 저조한 게 아니라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가 마지막에 79.8%였습니다.

○조정훈 위원 80%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해도 똑같이 430억의 80% 실행할 걸로 예상된다면 뭇하러 추경을 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이거는 1~2월 달에 저희가 집행한 게 거의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자 수가 3800명, 3200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의견을 주시지요. 박형수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원안 유지합시다.

○소위원장 진성준 원안 유지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기타 특이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보험정책 사업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에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AI시스템의 활용 및 전년 대비 민원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민간자본보조 29억 2200만 원 중 11억 52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이 사업은 총액을 그대로 묶어 둔 상태에서 현실의 집행 가

능성을 고려하여 한쪽에서 빼서 다른 쪽 비목을 늘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액의 변동이 없고 현실 집행 가능성에 맞춘 거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안도걸 의원님이 동의……

○소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간사 위원님.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건복지부 나가기 전에 한말씀, 아까 보류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대의견 제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어떤 사업인가요?

○조정훈 위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처음에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청년일자리사업이기는 하지만 돌봄서비스거든요. 그런데 돌봄서비스는 기준, 저는 최소한의 자격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나중에 예산을 얼마로 해서 얼마를 고용할지는 양당 간사님이 합의하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채용 자격을 돌봄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이거 내 기억에 이 사업은 돌보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돌봄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거라고 어디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두 가지입니다. 돌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행정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임위 때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상담사나 이런 부분들은 자격이 있으면 채용에 우선 조건을 한다’ 이렇게 부대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수용 가능합니다.

○조정훈 위원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부대조건 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간사님, 이걸 보류했는데 단기 일자리라고 해서……

○박형수 위원 아니, 그거는 보류해야 되고.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그거 조건까지 달면서……

○박형수 위원 그거는 보류를 해야 되고 지금 이거는 부대의견을 달까 말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든지 말든지……

○소위원장 진성준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자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달아서 통과시켜 주시면……

○소위원장 진성준 너무 깐깐하셔,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이 1개 통과시킨다고 위원장 1년 더 할 줄 알아요?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더 할 생각은 없는데……

(웃음소리)

○김대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면 또다시 여기서……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부대의견 달아서 처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박형수 위원 부대의견의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건복지부 다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들 인사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기후부1차관 금한승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부2차관 이호현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자료 2권입니다. 2권의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개선특별회계-세출, 감액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난방전기화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추가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추경으로 증액 편성된 5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감액에 이견이 없다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소영 위원 상임위 의견이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감액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페이지 2번,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긴급한 재정 투입 사유가 부족한 일반적인 사업 확대에 불과하므로 추경 증액분 19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액에 대해 정부안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상임위에서 이것 의논이 된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김대식 위원 상임위에서 어떻게 의견이 됐어요? 여기에 나온 대로 됐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당초 정부안대로 일단 상임위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여당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청년창업기업 창업자금 지원하는 거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때 성과가 좀 있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작년에 창업을 통해서 전액 집행이 됐고 일정 정도 이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후 분야 에너지 전환 이쪽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본격적인 성과는 아마 올해부터……

○임미애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 모집할 계획이었나요, 본예산에 잡아 놔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당초 정부안에서는 본예산에서 4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안에서 20개.

○임미애 위원 40개사 모집에 지금 지원은 몇 개 정도가 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아직 본예산에만 반영이 돼 있고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40개사 모집이 목표였다는 거잖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냐는 거지요. 40개사 모집에 몇 개사 정도가 지원을 했냐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이것은 올해 본예산이라서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아직 전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아직은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예산 증액을 요청하신 건가요, 19억 요청하셨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40개사에서는 지금 응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창업 여건에 대해서 좀 더 에너지 전환, 기후 대응 이쪽에 청년들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에너지공대 이쪽에, 나주 에너지벤처밸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0개사 모집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40개사가 지금 딱 맞게 모집되어 있는데 추가로 뭔가 수요가 더 있었기 때문에 추경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당초 저희가 목표로 했을 때는 한 100여 개 정도 처음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40개 기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당초……

○임미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알아듣기가 쉽지요.

40개사 모집을 했는데 40개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업 생태계 전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기후부가 에너지기후, 녹색산업, 이런 것에 대한 특화된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거여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유지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일단 20개사 추가 소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 내용을 보고 간사 간 협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박 간사님.

○박형수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

○박형수 위원 예.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할 때 이것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기후부에서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을 하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동 사업은, 일반적인 창업 생태계에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하고……

○박형수 위원 아니, 이따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세요, 여기서 설명하지 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 사업은 보류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세출 감·증액 사업 1건 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낮은 실집행률, 차량 출고대기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추경 증액 편성분 9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반면 소형 전기화물차,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 물량 확대 등을 위해 2300억 원 증액 의견, 2800억 원 증액 의견, 2500억 원 증액 의견, 282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어제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이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했지요?

○이소영 위원 예.

○김대식 위원 어제 이호현 차관님은 그때 안 오셨었지요? 장관님을 상대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보류로 해서 소소위에서 의논하시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걸려 있으니까, 법규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요?

○이소영 위원 예.

○임미애 위원 보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전기차, 특히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이게 농촌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류하시되 원안 유지에 대한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김대식 위원님 의견대로 보류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어제 제가 질의 중에 지적한 지금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이것은 행정실에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안)을.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부대의견팀에 전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감·증액 사업 4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융자)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 대응이라는 추정 목적과 무관하므로 증액분 2204억 6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기술 국산화가 아닌 설치에 편중되었고 집행 부진 우려가 있으므로 1132억 34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 번째 칸입니다,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네 번째 칸입니다—에너지 안보 확립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액에 대해 정부안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김대식 위원 이 자체는 지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사실상 이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이호현 차관님이 에너지 전문가니까 누구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전부 다 패널 자체가 중국산이 거의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추정에서 이렇게 하면 중국만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국내산 패널로 국한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묶어서 보류로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만약에 기후에너지부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부대의견으로 ‘국내산 패널 사용 시에 국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는 이 부대의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융자나 보급사업 모두 다 탄

소저감 모델 기준에 의하면 국산 업체들 위주로 거의 대부분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부대의견을 단다고 하면, 이게 용자사업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 못 하시나요? 그래도 이것 다시 논의해야 됩니까? 보류해야 됩니까?

○**김대식 위원** 일단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소위원장 진성준** 이소영 간사님, 부대의견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박형수 위원** 보류해야지. 당연히 보류해야지.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보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식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대의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답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부대의견을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마치 수용하는 듯이 보이잖아요.

○**김대식 위원** 아니, 그래서 국내산 패널을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소위원장 진성준** 백번 그래야지요. 우리가 중국산을 지원할 일이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 이호현 차관님, 약속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본 사업과 유사한 취지의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 목적과 무관하므로 증액분 623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300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세 번째 칸입니다—에너지 안보 확립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액에 대해 정부안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이것도 같이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5페이지입니다.

3번,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 활용 ESS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ESS 설치 는 고유가 상황과 연관성이 불분명하고 사업 일정상 연내 가동이 불가능하므로 588억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3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입니다. ESS 보급 물량 확대를 위한 58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액에 대해 정부안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게 야당 측에서는 연내 가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연내에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배전선로가 포화가 돼 가지고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는 것을 한 136개 정도 선정을 해 봤고요. 저희는 당초 본예산에 10개소만 구축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요는 40개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당장 연결되면 전기 계통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게 존경하는 박형수 간사님이 어저께 마지막에 질의하실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셨고 저는…… 태양광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땅에 접속도 안 되고 계통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ESS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이 사업이야말로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원의 취약점이 이미 충분히 노출됐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기반을 전환해야 된다면 ESS 사업도 따라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이게 일정상 연내에 가동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7월 달에 사업자 선정하면 저희가 선정되자마자 70% 집행을 하게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가게 하면 시공기간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면 저희가 사업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날짜에 쫓기고 이래 가지고 부랴부랴 하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그러한 것도 많이 발생할 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당장 계통이 포화가 된 지역이어서 계통 연결만 시켜 달라는 그런 지자체의 수요도 많기 때문에 바로 연결 가능……

○박형수 위원 그 부분은 일정을 구체적으로 사업별 정리해서 보류를 하고 거기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일정을 좀 제출해 주시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류하기로 하고요. 정부는 사업 이행 계획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6페이지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사회복지시설전기화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추가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추경으로 증액 편성된 12억 8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상임위 감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 감액 수용.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지출 감액 사업 1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실제 훈련 실시 여부 및 집행률 개선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증액 편성된 22억 8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맨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유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액에 대해 정부안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원안 유지를 해 왔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김대식 위원 상임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지금 중동 상황에 따라서 아마 산업 구조조정이 석유화학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전직 지원·훈련을 위한 수요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1분기에 보니까 23건이 이미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하게, 급하게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임위 의견을 따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박형수 위원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하는데, 집행 실적이 어떻게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작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 실질집행률이 그렇습니다만, 아마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작년까지만 해도 확정되거나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책도 발표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참고하시고……

○박형수 위원 지금 현재 2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 어느 정도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한 2.4% 정도 됩니다.

○박형수 위원 그게 저조하고, 작년에도 집행률이 40% 정도였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작년에 40%인데 지금은 아직 집행을 수요를 받아서 이제 집행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만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에는 40% 실행률입니다만……

○소위원장 진성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지영철 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입니다.

3월 말 집행 기준으로는 지금 27.7%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이미 파악했고 올해 편성된 예산은 한 사오 월이면 이미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저희가 파악한 신규 수요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부분들이 있어서 연내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 예상과 지금 작년 집행률이나 현재 2월 말 집행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서 집행률 상황을 좀 검토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보류하겠습니다만, 기후특위에서도 원안 유지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기후특위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온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기후특위 의결을 거쳐서 왔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의결을 거쳐서?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기후특위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제가 경제대응TF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을 가 봤더니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여수석유화학산단의 가동률이 한 60% 정도 뚝 떨어졌거든요.

○김대식 위원 몇 퍼센트요?

○안도걸 위원 60% 수준으로요.

그래서 여기 상용직들 보니까 25% 있지 않습니까? 벌써 실직이 됐어요. 이 사람들 빨리 일자리 전환시켜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여기 아마 투입이 되는 거지요, 그쪽 분야에? 구조조정 없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주로 석유화학 쪽……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안을 좀 결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 취지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냥 결정하고 가시지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서.

○박형수 위원 아, 이것 좀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좀 들어 보자는데 왜 자꾸 여기에서 하고 가자 그래.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지금 여기서 들으시면 되지. 아까 실무 과장의 보고도 있었고.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지영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해서 그 시행을 했고요. 연말부터 사실은 현장 수요가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집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년 한 이삼 년 전 대비해도 이미 연말까지 수요를 감안하면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석유화학에서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100% 동의해요. 그런데 실집행물이나 또는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지 어느 정도 규모까지 할지를 결정할 것 아니에요.

이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준비된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감액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이런 것까지도 결정해야 되니까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22억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서 박형수 간사님께 잘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기후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노동부차관 권창준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기획실장 손필훈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고용노동부, 페이지는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4건 있습니다.

먼저 1번,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입니다.

내역사업인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에 대해 추정 요건인 시급성이 결여됐으므로 추정 증액분 1047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다른 내역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낮으므로 추정 증액분 1482억 4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추계가 불명확하고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482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두 사업은 중동전쟁에 따른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산이고, 실제 저희가 잘 때 현재 본예산 집행이 전부 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K-뉴딜아카데미는 저희가 지역이나 그다음에 노동시장 진입 전에 있는 이탈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와 그다음에 자신감 회복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K-디지털트레이닝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굉장히 많이 늘린 건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본예산의 20%가 넘는 예산을 또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소요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짤 때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것들을 중동전쟁과 관계없이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 중동전쟁 이후로 실업률이라든지 쉬었음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예전에 코로나 때도 경험해 봤지만 저희가 지연이 되면 다시 원상 회복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기에 이런 상황일 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정훈 위원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이게 지금 굉장히 돈이 필요한지 꼭 이걸 써야 되는지 검토하는 거라……

또 봤더니 훈련과정에서 수료율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9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90%가 아니니까 드롭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그러면 본예산 참여인원이 지금 5만 명인데 약 10%, 5000명이 지금 중도 이탈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 예산이 빌 텐데 그러면 그걸로 이 정도 1만 명에서 1000명 또는 10% 이상은 쓸 수 있다는 산수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이게 작년에 환경노동위에서 심의할 때도 저희가 수료율이 한 90% 수준인데 이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 시 단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본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두 번째, K-뉴딜아카데미도 이게 대기업 등 훈련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저는 이것 대기업 교육비 대납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대기업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훈련시킬 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K-디지털트레이닝은 협의해서 예산 절약 가능한 부분 정도만 조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민주당의 의견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K-뉴딜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보면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수도권이었었는데 지방에서 구직을 단념하고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리고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35% 정도네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두 달 지났는데 35%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현장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 수요도 굉장히 높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수요도 굉장히 많

은 상황이고 특히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에서 구직을 아예 단념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소영 위원 이견이 크므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박형수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3페이지, 2번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추경 취지와 무관하고 차년도 본예산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경 증액분 264억 6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 단기 일자리 사업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것 저희들이 좀 살펴봤는데 단기 일자리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비……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이 사업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서 의견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나 경력직 채용 경향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냥 일경험 프로그램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조정훈 위원 일경험 프로그램과 단기 일자리 사업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박형수 위원 단기지. 일경험을 계속 장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단기 일자리로 단순하게 주는 게 아니라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는 돈을 주는데 명분이 필요해서 만드는 일자리이고 일경험 일자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로 가는 마중물이 된다 이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정훈 위원 그것은 말장난이지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류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단기 일자리로 해서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걸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보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4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둘째 줄입니다, 본예산으로 수행 가능하고 25년 결산 결과 726억 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서 추경 증액분 257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아까 다른 것과 비슷한데 저희가 예산편성 시 작년도에 상임위에서 할 때 중도 탈락분을 기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 발생과 관계없이 이것은 사실은 예산집행이 다 가능하도록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 운용을 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에 이렇게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으면 그 예산은 추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계속사업을 함에 있어서 올해는 작년에 불용이 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라는 자료를 갖고 와야 국회에서 이것을 계속하고 증가할지를 검토하는 건데 아직 그런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또 726억이라는 막대한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그런데 이번 예산에 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건 저는 이것은 예산운용원칙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나간다. 그리고 차라리 다른 청년일자리 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이소영 간사 위원님.

○이소영 위원 지금 이 사업에도 청년 일경험 지원이 있어서 일괄 보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진성준 그렇습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5페이지 4번,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역사업인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 사업도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둘째 줄입니다,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여수, 서산, 울산 등은 이미 본예산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추경 증액분 1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중동전쟁 장기화로 지금 저희가 물류유통, 건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이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수요에 맞는 것들을 좀 증액하는 부분이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지적인 위원님에 의하면 아직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저희가 기존 버팀이음 예산 본예산이 있는데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미지원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정훈 위원 구조는 똑같고 지역을 추가하겠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여수, 서산, 울산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광주·전남, 경북 그다음에 충남인데 추가로 인천 동구하고 당진하고 지금 수요가 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훈 위원 지역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두 군데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조정훈 위원 나머지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경기가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은 예산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요. 지역도 선정하지 않고…… 이것은 보류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제가 짚어야 되겠네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이게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응지역 있지 않습니까? 선제 대응지역이 있고 특별대응지역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는데 중복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왜냐하면 산업부 사업은 주로 기업 지원이나 산업 생태계 쪽 이라면 저희는 노동자 지원이거든요.

○안도걸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정이 되면 산업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거고 고용부가 들어가서 그쪽의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지정합니다.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잖아요. 고용위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이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이 고용둔화지역을 그냥 막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건이 다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렇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한 대상 지역이 늘어났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의견이 갈리므로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지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연례적 집행 부진 및 불용이 발생하였고 저조한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변경안 증액분의 50% 수준인 92억 7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두 번째 칸입니다—중소상공인들의 고용안정지원 강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집행 추이와 중동 전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집행 추이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지금 26년 3월 본예산 집행률이 23.7%로 저희가 전망해 보건대 연말까지 다 집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증액도 100% 집행 확신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조정훈 위원 만약에 연말에 증액된 것 집행 안 되면 그다음 해, 27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감액합니다, 그때는. 부대의견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소위원장 진성준 부대의견 적어서 수용하십니까?

○박형수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수용하신다고……

○조정훈 위원 수용해요?

○소위원장 진성준 원안 유지합니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채불청산지원융자(융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첫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둘째 줄입니다—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금 소요 발생 시 기금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변경안 증액분 899억 4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두 번째 칸입니다—임금채불 급증으로 인한 근로자 지원을 위해 14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증액 필요 의견은 저희 수용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감액과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폭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을 초과해서 130%의 증액을 요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 이게 지금 기금으로 운용되는 건데 아시는 대로 기금운용계획의 항 내 변경은 20% 범위까지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 해당항 지출 총량이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해서 약 1600억 원 규모까지는 추경 거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127%나 요구하실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계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항 지출을 변경해서, 그것은 기재부하고 상의만 하시면 법에 허용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비용을 마련해 보시고 나머지 잔액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만 추경 요구하시는 건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24년 결산 시에도 저희가 임금채권기금을 몇 번 변경했을 때 국회의 지적 사항이 자체적인 반복적인 이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자제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차원에서 이번 국회 추경에 담은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것 채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기업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도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요. 같은 뜻이었으니까 이제 의견을 정리해 가시게요.

박형수 간사님은 어떻습니까?

○박형수 위원 논의를 해 봅시다.

○조정훈 위원 이것은 보류해서 논의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보류해서……

○소위원장 진성준 국회의 지적까지 있어서……

○박형수 위원 아니, 이것은 두 가지 다가 지금 타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측 얘기도 지난번 24년도에 기금을 자꾸 이렇게 쓰니까 쓰지 말라 그랬다는 거고, 지금 조정훈 위원 얘기로는 그렇게 할 여지가 있는데 추경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라서 그게 양쪽으로 조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해도 괜찮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위원들이 오셨을 때 그 부대 기록을 보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그렇게 가면 어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국회에서 그때 지적이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 합의로 처리된 만큼 조금 감안해 주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의 지적을 수용해서 기금액을 늘리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컷 늘려 왔더니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 이러면 국회가 이중 잣대 아니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부대의견 수용하고 원안으로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굳이 원안 처리하나 기금으로 검토하나 결국은 다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것이 더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고용노동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들 인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1차관 김이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2차관 홍지선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37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정책연구 개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 편성 요건에 어긋나는 불요불급한 일반행정 비용으로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택지사업 집중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 포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연구 수행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추경안에서 본예산 28억 7800만 원 대비해서 10억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추정 목적과 무관한 단순 용역사업을 왜 추정에서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본예산의 사업들은 이미 다……

○김대식 위원 소진됐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용역기관들이 다 선정이 됐고요. 이것은 추가로 남부권하고 동부권역에 지금 교통 문제가 있으니, 지금 현재 남부권역에 약 25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역에는 16개 택지개발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급하게 지금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김대식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용역 수행에 8개월이 소요되는데 연내 활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것 보면 추진 일정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5월 발주해 가지고 12월 보고로 이렇게 했는데 수행만 8개월 걸리는데 이게 되겠어요? 긴급한 처방으로 이것 활용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연구진을 충분히 투입하면 충분히 금년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도걸 위원 이것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것과 좀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기초 자료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빨리 제공하면 용역 결과가 제 생각에는 중간 보고가 한 팔구 월에는 가능하지 싶은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면 그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 정도 되면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놓쳐 버리면 1년이 더 가 버리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임미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 아니요. 나 아직 안 끝났어요.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짧게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김대식 위원님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아니,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안도걸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내년엔 이게 1년을 당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내년엔 신규로 지구 지정이 되는 사업들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안도걸 위원님이 대신 대변해 주면 이게 어떻

게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부처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요.

○조정훈 위원 안도걸 위원님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김대식 위원 안도걸 위원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부처를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수용하십니까?

○김대식 위원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간사 위원님.

○박형수 위원 아니, 물어보고 수용해야지.

추경이 없었으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1년 늦추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추경이 없으면…… 정말 추경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추경…… 그거 웃으면서 할 얘기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죄송합니다.

○박형수 위원 이렇게 급하고 지금 6만 호나 되는 것에 대한 교통분석을 하는데 이걸 빠뜨려 놓고 지난해 본예산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원래 사업이 올 1월 29일 날 주택공급방안 그것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추가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망 포화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 사업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남부권역과 동부권역의 주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만들게 되면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시급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소영 간사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이소영 위원 저는 의견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안 하셔도 뭐……

○소위원장 진성준 이것 갑시다.

○박형수 위원 그게 무조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을 잘 모르시네.

○소위원장 진성준 왜 무조건이야.

○박형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걸 보류를 하고…… 내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걸 보류를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충분히 설득이 되면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다른 문제가 있으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보류를 합시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번,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본예산의 효율적 재배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4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공사 중단·지연, 현장 시설물 피해, 다양한 분쟁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한 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의 중동 쪽에 가서 쪽 돌아보면 이게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이게 전체가 컨설팅을 추가한다고 해서 자재가 공급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차관님, 가 보셨지요? 중동에 가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김대식 위원 인프라 한번 보셨지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금을 가지고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될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것 이것도 조금 뭔가가, 뭐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미 확보된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이걸 대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4억 원 정도인데 뭐 우리가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차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코로나 시대, 코로나 때도 중동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을 때 보고드렸던 대로 지연에 따른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 한 150건을 컨설팅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4억을 올린 것은 150건 정도를 예산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동의합니다. 원안 유지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3번,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무리이므로 추경 증액분 1억 3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내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ISP 수행을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건설공사 임금 체불이 연간 4000억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기 지연이라든지 공사비 상승이 대금 체불로 이어져서 하도급사 및 근로자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수급자별로 직접 지급하는 대금 체불 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방향을 사전에 설계하고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정보화 전략을 계획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표로 저희가 이 ISP 예산 반영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것 돈 4억이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이것 1억 3000.

○김대식 위원 1억 3000.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진성준 이것 원안 반영합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내용을 보셔야지 금액 가지고 자꾸……

○소위원장 진성준 내용은 맞을 것도 없어, 임금 체불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1억 3000 원안 반영.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국토교통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국토교통부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드리기로 한 자료 잘 만들어서 설득하세요.

재정경제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들 인사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재정부1차관 이형일입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재정부2차관 허장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의 55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증액 사업 1건 있습니다.

1번, 한국은행 잉여금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은행의 결산상 순이익금을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2025 회계연도 한국은행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2월에 결산이 완료되어 잉여금 규모 확정 및 수납이 완료된 초과 세외수입을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3조 4359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초과 세수 및 세출 사업의 규모나 세외수입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한은 잉여금은 추경 재원에 미포함되는 현행 정부 원안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중동 전쟁 및 고유가 대응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 조달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보고 있고 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항목 간의 변수가 다양하여 전체 세외수입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정부 원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박형수 위원 원안 유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원안대로 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부 기타 특이사항이 3건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3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재정경제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업명을 변경하려는 사업입니다. 국고국을 국고실로, 정책조정국을 혁신성장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이 내용도 실질적인 변경 없이 현행 직제 문구를 맞추는 내용입니다.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반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재정경제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인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획예산처 감액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인사해야지 인사 왜 안 해?

○소위원장 진성준 아까 맨 처음에 했어요, 시작할 때.

○박형수 위원 그것은 배석자로서 한 거고.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60페이지, 기획예산처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추경안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5조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중 목적예비비 0.3조 원은 특별한 용처가 없이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목적예비비로 불가피하게 계상한 것은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규모를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적예비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안 쓰이게 되면 연도 말에 불용이 돼서 세계잉여금으로 돼서 내년에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의 불확실성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쓰였을 때 내년도에 국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지금 이게 3000억 원 목적예비비가 들어온 건데 손실보전과 나프타 수입에 쓰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목적예비비는 아무 용도에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총칙에 규정된 대로 고유가 대응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즉 3000억 원은 지금 이게 손실보전일지 나프타 수입일지 모르지만 고유가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만 쓰는 거다, 이 목적입니까?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최고가격제 소요 4.2조 원, 나프타 0.5조 원을 제외한 소요 0.3조 원은 특별한 용처가 없어서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재경위 소위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부 예산에 외화예산도 있고 유류비 예산도 있습니다, 정부가 쓰는 거. 이 또한 소요가 늘어날 텐데 얼마만큼 소요가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0.3조 원 정도를 목적예비비의 총액으로 계략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하여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알겠는데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하고 간사들하고 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류해 놓고 다음에 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안도걸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 목적예비비가 5조잖아요. 5조 충분해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저희가 지금 중동 전쟁의 추이에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목적예비비 5조 원 정도면 소요에 충당할 수 있다고 현재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지만, 물론 중동 전쟁이 현재보다 더 격화되고 지금 예상보다 장기화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중립적 정도 수준의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유가가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미 정유시설이 많이 파괴가 되고 했기 때문에 고유가는 상당 부분 갑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가지 소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요. 그래서 5조가 결코 많지 않다, 그에 대한 비상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알겠습니다. 지금 안도걸 위원님이 주신 말씀까지 감안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 사안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기획예산처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세청 제일 문제 되는 것 알고 있는데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입장만 딱 정리해서 보류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소위원장 진성준 국세청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해 주시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입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62페이지, 국세청은 감액심사 1건 있습니다.

압류재산공매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에 대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에 대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다 아니까……

○김대식 위원 예, 간단하게……

청장님,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됐잖아요. 사실상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2500명을 선발하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7000명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소위원장 진성준 김대식 위원님, 짧게……

○김대식 위원 제가 조금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짧게 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왜 지금 이 시기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왜 이게 선거를 앞두고 지금 꼭 해야 되는 건지, 연말에 하고 내년엔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걸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진성준 설명하세요. 답변하십시오.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중동 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고통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고 특히 청년들의 쉬었음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쉬었음 상태의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세 체납액이라든지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축소해서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생계곤란형 체납자들에게는 경제 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해서……

○박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공방이 있었고 또 검토도 좀 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추경으로 피해지원금 지급해 가지고 과태료로 도로 받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충분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소위원장 진성준 예,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국세청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청장님.

○조달청장 백승보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기획조정관 이형식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64페이지, 조달청 1건이 있습니다.

1번,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에 대해 이 업무는 상시 업무에 해당함에도 긴급한 성격의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단기 일자리 양산에 불과하므로 26억 3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 안전한 공공공사 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조달청장 백승보 조달청은 감액 의견의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민간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공공건설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공공건설 물량 자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를 하게 되면 건설한 중소 건설업체가 수주 기회를 상대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건설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것도 일자리 창출 그거니까 같이해서 통합해 가지고 의논하시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단기 일자리로 채용해서 조사하는 건가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저희는 42명 기간제가 있고요 정말 필요한 소수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인건비는 일부고요 회계법인에 맡겨서 자본금 심사하는 게 12억 원이고……

○조달청장 백승보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운영비가 또 5억 원가량이고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채용하는 인력도……

○조달청장 백승보 예, 장비 비중하고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

채용하는 인력도 42명이어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거라고 봐야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이게 추경에 맞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월 11일인가,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전수조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거지요?

○조달청장 백승보 저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12월 11일 날 말씀하셔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로 보고 소위에서 의논하세요, 그건.

○소위원장 진성준 일자리 창출은 좀 이상한데.

박형수 간사 위원님.

○박형수 위원 예.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조달청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이석하십시오.

지금부터 산업통상부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관님 인사해 주시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산업통상부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 김성열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69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3건 있습니다.

1번, 제조암묵지 기반 AI모델개발 R&D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 경기 대응과 부합하지 않는 신규 R&D 사업이고 사업구조와 실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80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177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고, 반면—두 번째 칸—제조 명장의 기술과 노하우 등이 단절될 위기에 있으므로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부안 원안유지가 필요합니다.

제조 AI 전환이 굉장히 시급하고 특히 제조 장인들의 은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견 삭감을 제안드립니다.

암묵지의 데이터화라는, 암묵지…… 뭐라 그럴까, 암묵지식이라는 게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암묵지의 데이터화라는 사업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좀 추상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이라면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지금 전쟁이고 급격한 민생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사업을, 특히 800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여기다가 투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 삭감이나 상당 부분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본부장님, 왜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것은 산업부가 미리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사실 AI가 워낙 빠르게 속도가 진전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저희가 기업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고. 우리가 제조 공정에 있어서 AI 기반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래야만 퍼지컬AI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제야 뒤늦게 가져오냐 이거지요.

○산업통상부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성장실장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너무 시급합니다. 지역에 명장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다 인력……

○안도걸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걸 못 했냐고, 이제 왔냐고.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AI 강의 듣고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이런 명장들 기술을 행동으로 학습해야 된대요.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정 아니라고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0페이지 2번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금의 보증여력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대외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5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부안 원안유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동 수출 피해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무역금융 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보면 지금 이게 무역보험기금의 출연금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조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2026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140%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중동 수출 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원래 무역보험이라는 게 일단은…… 출연한다는 건 보증 사고 발생한 뒤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부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조정훈 위원 출연한다고 바로 지출하는 건 아니고 보험 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만 지출하는 건데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 너무 많은 금액을 책정한 게 아닌가. 저는 절반 정도는 감액을 해서, 취지는 이해하니까 일단은 해 보고 필요하면 더 추가로 기금 출연하는 것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지금 이게 수정액이 500억 삭감으로 의견이 올라왔잖아요, 500억 삭감으로?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원안은 1조지요? 아닌가요? 1000억인가요?

○소위원장 진성준 1000억을 절반 깎자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1000억 정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100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지금 추정안 산출내역은요 정부출연금을 1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무보에서 자체 재원을 통해 가지고 77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770억 원 이것을 이번에 증액을 하면 한 17배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굉장히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이요. 저희가 중동수출 피해·애로 센터를 통해서 지금 기업들 애로를 들어 보면 약 25%가 유동성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 내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 사업이야말로 이번 추경의 본질에 아주 충실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여야 이견이 있는데 어때요? 보류해요?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일단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 지금 이렇게 1000억을 증액하면 아까 17배 보증 여력이 더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박형수 위원 그것 충분히 다 소진할 수 있는 신청이나 이런 게 있어요? 또는 확실한 예상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그만큼 안 되면 이것은 그냥 자금이 묶이는 게 되는 거잖아.

○산업통상부무역정책관 나성화 무역정책관 나성화입니다.

저희가 올해 중동사태가 터지기 전에 올해의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총 27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올려 났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동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분기까지 무역보험 공급액이 나가는 속도가 작년보다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박형수 위원 1분기 것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부무역정책관 나성화 전년도에도 미국 관세 이슈 때문에 무역보험 공급 규모가 268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1분기에 나가는 공급액 소진되는 속도가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석유화학업계라든지 정유업계 실상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프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출입 보험이 뒷받침 안 되면 지금 수입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긴급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출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 보니까 지금 수출대금을 못 받잖아요, 운송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자금 압박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늘렸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이걸로, 1000억으로 충분할 것인지라는 게 나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산업부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적정한지를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예산도 보세요. 25년도에 결산 해 가지고, 3800억 투입을 했잖아요. 금년 예산 얼마입니까? 70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신규 여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추경 때 1000억 가져왔는데, 이게 약간의 정상화 수준으로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중동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외된 긴급한 보험 보증 소요를 지금 다 충당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짚어 보세요.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부가 애초에 판단한, 이 숫자 이상이 될 걸로 보는데 여하튼 저는 이 숫자만큼이라도 원안은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사실 이번 26년 본예산의 705억은 중소형 조선사 RG 지원에 특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동 사태와 같은 이런 유동성 위기, 말씀하신 수출·수입 그런 데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한 상황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 비상 수요에 대해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안도걸 위원** 본예산에 없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진성준** 어떻습니까, 박 간사님? 이것 원안 반영해서 잡시다.

○**박형수 위원** 아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반영이 아니라 더 증액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정확한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50% 정도 감액해도 될 것 같다’ 또 이쪽은 ‘더 늘려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뭘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그걸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걸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잠깐 보류를 해 놓고……

○**소위원장 진성준** 여기서 구두로라도 바로 설명 못 합니까?

○**산업통상부무역정책관 나성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장 진성준** 숫자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통상부무역정책관 나성화** 숫자가 올해 중동 사태 있기 전에 작년에는 무역보험 공급 규모가 추정 3000억을 받아 가지고 본예산은 800억이면서 3800억을 활용을 해서 268조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RG 공급 예산으로 705억 원만 받은 상태에서 275조 원의 최고 목표치를 삼았는데 1분기에 무역보험 공급액이 70조가 이미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 대비 26% 수준인데 작년도 1분기에 나갈 때는 60조 원 정도였거든요, 미국 관세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15%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중동 수출기업 관련해서 애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애로가 1000건 이상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애로는 물류 불안이고요, 두 번째 애로가 유동성 공급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지금의 중동 사태의 수요는 본예산이나 올해 목표치 설정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무보의 자체 자원 770억 그리고 정부의 추경예산 1000억 원을 합쳐서 1770억 원을 투입했을 때 3조 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작년 추경 때는 왜 3000억 추경을 했지요?

○**산업통상부무역정책관 나성화** 작년 추경은 미 관세 대응 무역보험 특별지원 쪽에 들어갔고요……

○**박형수 위원** 관세 때문에?

○**산업통상부무역정책관 나성화** 예, 방산 수주 지원 쪽에도 들어갔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해 줍시다.

○**박형수 위원** 그럼시다. 다 해 주자 그러는데 합시다.

○**소위원장 진성준** 원안 반영합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감사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그 대신에 진짜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이게 제대로 집행 안 돼 가지고 남으면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긴급한 데 못 쓰고 무보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이 자금을.

○조정훈 위원 의원실에 자료제출 해 주세요.

○산업통상부무역정책관 나성화 알겠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자신 있게.

○소위원장 진성준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71페이지, 3번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로봇 및 부품 실증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경기 대응과 부합하지 않는 신규 R&D 사업이고 성과 부진 우려가 크므로 20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두 번째 칸을 보시듯이 다양한 업종의 AX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부안 원안유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등 퍼지컬 AI 로봇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시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증 지원 필요성이 높아서 정부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산업에 관한 정책인데요, 지능형로봇 보급 그다음에 이따가 나올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이거는 일반예산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추경에 들어가서 긴급성과 일시성의 조건을 저는 충족 못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보면 AI 팩토리 실증 20개, 휴머노이드 10개사, 휴머노이드 부품 10개사 거의 한 40개 회사에 5억씩 나눠 줘 가지고 실험을 하자는 건데요. 이거는 중장기적인 R&D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계속, 어떻게 보면 27년 예산에 받을 들여놓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까 그 무역보험과 같은 긴급성은 전혀 해당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이런 걸 감액해서 아까 무역보험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찬성할 수 있어도 이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조정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확인해야지요. 이 사업이 R&D 예산입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R&D 예산은 아니고 실증, R&D로 어느 정도 개발된 거를 현장에 수요 창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참고로 이미 만들어 놓은 휴머노이드와 AI 로봇을 산업 현장에 보급하고……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보급하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실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양산하고 중국하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조정훈 위원 그게 R&D의 일부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안도걸 위원님 말씀……

○안도걸 위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시급하고도 중요한 예산이 작년에 574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금년 본예산은 567억으로 줄었어요?

○산업통상부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저희가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감액이 됐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더 줄여져 있는 본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피지컬 AI는 시간을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시간 다투는 싸움이고요. 이미 기업들이 여기에 30% 매칭 설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의지도 다 있는 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로봇으로 우리 기업들을 한번 살려 보자 이런……

○안도걸 위원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본예산을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냐 이거예요. 작년보다도 더 감소가 됐냐 이거지요. 여하튼 저는 필요하다고…… 200억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

○산업통상부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라도 하면 로봇 실증은 한 40개 장소밖에 안 됩니다만……

○안도걸 위원 여기에 현재까지 수요조사 결과도 지금 보니까 3.3 배 1이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저희가 40개 하는데……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현장 수요를 못 쫓아간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산업통상부산업성장실장 김성열 현재 수요가 3배, 4배 이상 훨씬 많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다면 이 수요를,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긴요하다면 이 수요만큼 우리가 다 가 줘야 된다. 물론 거기다 준비라든지 여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수요의 절반 정도라도 쫓아간다고 한다면 200억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산업통상부산업성장실장 김성열 200억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원안은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 안건 양쪽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해서 보류를 하되…… 아니, 작년 본예산 할 때 가장 큰 부분이 AI 아니었어요? 그때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AI에 얼마나 큰 예산들을 넣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시급하지 않은 것인지, 산업부가 무능해 갖고 이걸 못 넣은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일단 보류해서 어떤 건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합니다.

로봇 발전 기술이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8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 감·증액 사업 1건 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옛지 AIDC 실증 시범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둘째 줄입니다, 추경의 본래 취지인 긴급하고 일시적인 경기 대응과는 거리가 있고 충분한 사전 기획과 단계적 검증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4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두 번째 칸입니다—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 1개소 구축을 위해 1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부안 원안유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산업단지 AX확산을 위해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본 추경 사업은 초기 효과성 검증을 위한 1개소 시범사업이라서 4개월 이내에 바로 구축이 가능한,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제가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사업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리 봐도 긴급한 추경의 긴급성과 한시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경에 넣습니까? 시범사업을 추경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 논리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증되고 효과가 확실하고 한시적이고 즉시적인 투입하는 예산이 추경이지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고 추경으로 갖고 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뜻을 알겠습니다.

이소영 간사 위원님.

○이소영 위원 직전 안건과 쟁점이 동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류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85페이지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석유비축사업 출자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또는 중장기적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경 증액분 1584억 3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인 비축기지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비축목표량보다 초과하는 비축시설을 현재 확보하고 있으므로 3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맨 위의 칸에, 반면 비축유 구입 사업 978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부안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동발 원유 확보 관련한 그런 비상사태를 생각할 때 저희가 충분한 비축유 구입 및 비축시설 증설을 위한 이런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석유비축의 역량 규모를 늘려야 된다, 언뜻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 게 얼마 전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산업부가 지금 감사 중인 석유공사 그 90만 배럴, 특히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200만 배럴 확보 계약을 추진하다가 파기해 버리고 오히려 90만 배럴을 해외에 판매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산업부가 감사 중이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석유공사에 이거 상황 어떻게 되는 거냐 문의했더니 감사 중이라 답변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저희한테는.

이렇게 충돌되는 정책들을 실행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명은 좀 해야 국회에 와서 또 이거와 관련된 예산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관계관계서 보고하십시오.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위원님, 산업부의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그것은 국제공동비축사업이고 비축유는 아니고요. 그리고 공동비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그 A사가 비축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그 비축시설의 이용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A사가 해외에 있는 다른 B사한테 이렇게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사가 B사한테 팔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걸 인지해서 중간에 못 팔게 애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90만 배럴은 나간 상황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가져온 상황인데, 자세한 선후관계는 나중에 감사에서 나올 것이고 그 사실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국제공동비축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해외에 있는 UAE나 사우디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네들 석유를 우리의 비축시설에다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축유처럼……

○조정훈 위원 그건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이런 추가 투자 없어도 정책을 현명하게 썼으면 90만 배럴도 안 나갈 수 있었잖아요. 우선구매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실행하지 않은 거고 이걸 아차 싶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그래서……

○조정훈 위원 지금 그러면 공동비축, 그러니까 우선구매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공동비축 물량은 얼마입니까, 국내에?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지금 현재 공동비축 물량은 저희가 한 300만 배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300만 배럴 전액을 우리가 우선구매권이 행사 가능한 겁니까?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물량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2000만 배럴 되는 계약물량도 노르웨이나 이런 등지에 지금 빨리 여기 채워 넣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국

내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비축이 300만 배럴입니까, 210만 배럴입니까? 그것 정부가 정확하지 않네. 어떤 쪽에서는 210만 배럴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여기 실장님은 300만 배럴 이야기하고.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국제공동비축으로 해서 들어오면 SK나 GS 같은 데서 필요하면 빼서 씁니다, 계약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고량은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석유공사의 비축시설 저장용량이 총 1.1억, 4597만 배럴인데 이 중의 90.3%를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국제공동비축이나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좀 여유 공간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면 실질 잔여 공간이 0.18%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축시설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박형수 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부터. 같이 대답해 주세요.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예.

○**박형수 위원** 이 예산 늘리면 비축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유를 사 오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둘 다인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지금 둘 다 예산이 섞여 있고요. 하나는 30억은 저희가 비축시설을 짓기 위한 설계 예산이고요, 그리고 1500억……

○**박형수 위원** 설계?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예.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 설계에 따라 지으려면 얼마 더 드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그것은 저희가 추산해서 그것에 따라서 사전타당성조사라든지 그것은 1조 이상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들어오는 것 아니고 이번에는 그냥 설계하는 것만 들어갔습니다. 30억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 설계만 해 놓고 안 쓸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상적인 예산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물어볼 게 그렇게 1조가 드는 비축시설을 늘리면 현재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것의 몇 %가량을 더 늘리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하고 있는 건 한 2000만 배럴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까 비축유 얼마라고, 1억 뭐……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지금 비축 공간으로 따지면 1억 400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15% 정도 더 늘린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의 하나는 현재 우리 비축저장소를 쓰기 위해서, 이거는 대외비기는 한데 UAE하고 사우디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다른 데다 이것을 갖다 저장을 시켜 놓고 그것을 팔거나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팔거나 이런 것을 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비축시설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두 군

데서 경쟁이 붙어 가지고 저희가 양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제 의견들 말씀 주시지요.

○안도걸 위원 비축유 구입 있잖아요. 1554억 이게 저거지요? 지금 우리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한 것 생산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 이미 정부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355만 배럴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것을 지금 가져오기 위한 그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축유?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이것은 그거랑은 별개로 저희가 비축유 도입을 위한 예산을 요청을 드린 거고……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비축유 있잖아. 우리도 물량을 확보해야 비축을 하지. 물량이 그 물량 아니에요?

○소위원장 진성준 어떤 기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안도걸 위원 어떤 기름을 가져와요, 우리가?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지금 석유공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항상 비축유를 가져올 때 늦습니다. 왜 비축유 가져올 때 늦냐 하면 자기 예산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가져와서 국내에 팔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해서 생산한 그것을 가져와야지.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 예산 아니에요? 그것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지금 한 방울이 아쉬운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예, 거기다 쓸 수도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자료도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예, 거기다 쓸 수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예, 가져오는 데도 돈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가지고 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하튼 이것은 필수적인 예산이잖아요.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당연히 너무 필수적이고 그게 지금 아쉬운데 석유공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이소영 위원 정부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답변을 하시고,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예,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비축기지가 세 군데 있어요, 거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물량이 1억 4900만 배럴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것은.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이러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국민들

이. 어떻게 1억 4900만 배럴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땡땡거리고 아무 걱정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소비량이 얼마인지 알아요? 200만 배럴을 우리가 써요. 200만 배럴 쓰는데 30%만 우리가 하고 70%를 지금까지 수출했다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1억 4900만 배럴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안도걸 위원** 아니지요. 그것 맞는 이야기예요. 1억 1000만 배럴이고 그런데 용량이 1억 4000이다 이 말이지요.

○**김대식 위원** 그렇지, 용량이 그렇다는 거지.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니까 늘리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진성준** 이제 그런 사실관계 파악하지 말고 의견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할 건지 말 건지 이것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비축하자고 하는 것인데 반영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소영 위원** 간사님 얘기를……

○**박형수 위원** 지금 비축량부터 어디다가 쓸지 그다음에 어디로부터 도입할지, 비축유 예산은 썼는데 도입할 데는 없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보고 산업부나 석유공사로부터 자세히 좀 듣고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보류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제 의견은 비축유 구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지금 비축기지 유지 보수라고 하는 설명으로 새로운 비축기지를 만드는 설계용역 예산을 담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걸 담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쨌든 석유 사용에 대한, 의존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신규 비축기지가 필요한지 여부도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설계용역 이것 30억 주고 하고 나면 1조가 넘는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형수 간사님 말씀처럼 보류하고 그 부분까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좋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산업통상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추정안에 대해서 감액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1차관 노용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김우중** 기초실장 김우중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89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1번 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에 대해 125억 원 전액 감액의견과 110억 원 감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감액안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창업기업 우수기술 사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존 사업 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도 2차 공고를 통해 충족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 이게 긴급성이라고 하는데 긴급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왜 그러냐면 수요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게 불투명한 창업기업 전용 트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사태의 긴급성을 말씀을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수기술 트랙인데요. 각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게 돼 있는데 부처들이 좀 고압력 기업으로 추천하다 보니까 창업기업들의 비중이 저희 R&D에서 하는 창업기업 비중보다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창업기업들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의 창업 트랙이 필요하다는 그런 긴급한 수요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본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충분하게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이것은 연구개발 예산이 아니고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창업기업 R&D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김대식 위원 R&D 이것은 아주 아픈 상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진성준 R&D 사업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이것도 사업화 사업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면 실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총 160개를 금년에 본예산으로 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 1차 모집에서 92개가 신청이 들어왔고 추가로 계속 2차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출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 보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걸 원안 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도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박형수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2번 창업저변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내역사업을 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내역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

입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1550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추정안 증액분 1550억 원은 이 사업이 아닌, 97페이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에 편성되는 게 적절하므로 거기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세 번째 칸입니다.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 등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137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네 번째 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칸에 있는 창업사업화지원으로 이관하는 사업은 증·감액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내용이 있으므로 기획예산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우선 기획예산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방금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 사업이 지금 창업저변확대에 들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창업사업화지원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별건으로 이거는 실체에 맞게 변경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저변확대에 있는 거를 창업사업화지원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예산 규모의 문제잖아요. 감액의견이 있는데 중소기업부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사실상 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닙니다. 저희는 예비창업가 육성이라는 기정예산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고 다만 효과성이라든지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운용 방식의 변경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 목적 외에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게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목적이 이게 예비창업패키지는 말 그대로 예비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모두의 창업도 예비창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목적은 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이거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벤처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목적 외의 이것은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말씀드린 대로 예비창업가 육성이라는 목적과 기능 면에서 동일하고 다만 방식이……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충분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저는 보류하고 그렇게……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전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결산 때 지적해 주시고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김대식 위원** 아니, 전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용해 가지고 쓰면서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메꾼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맞지요. 선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설명을 좀 저희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예, 짧게 설명하시고 어차피 보류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메꾸는 게 아니라 1차를 저희가 기정예산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해서 했고 이번 추경예산은 2차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메꾸는 개념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진성준** 예, 보류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논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저지르신 거예요.

○**안도걸 위원**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조금 그래도 해 본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게 뭐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목에 대한 변경을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사업의 용처를 바꿔 버리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업의 방식을 바꿨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오디션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창의적인, 경쟁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업들이 발굴해질 수 있도록 사업자를 뽑는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좀 더 체감적으로 바꾼 거지요, 모두의 창업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브랜드를 새로 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도걸 위원** 브랜드를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이 자체 브랜드만 보고 한 건 아니고 실제 사업은 또 있잖아요, 사실 본질적으로 같다. 그래서 절대 목적 외 사업을 한 거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 예산 당국하고 협의도 다 마치고……

○**김대식 위원**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고 하여튼 저는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그러면 91페이지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 사업도 지적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2페이지 3번 신용보증기금과 93페이지의 4번 기술보증기금 출연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의,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확

보한 특례보증 재원이 남아 있고 일반보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에 대해서도,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재 기보의 운용배수가 9.9배로 적정 운용배수보다 낮은 수준이고 총 보증여력 또한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2건 모두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위한 추가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일반보증 재원 활용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증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9.9배의 운용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배수 10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적정 배수에 근접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대식 위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재원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3조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했고 2조 공급되고 지금 1조가 남았는데 이게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자금에 대한 수요가.

○김대식 위원 그러면 1조 정도 남아 있으면 1000억이, 지금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1조는 지금 올해 이제……

○김대식 위원 다 소진을 하는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관세 피해 기업 지원용으로 이미 많이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저희가, 직간접 피해 기업을 다 포괄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금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기술보증기금 출연도 마찬가지로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기술보증기금은 이미 지금 보증 배수가 9.9배까지……

○김대식 위원 보증여력이 지금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보증여력이 그렇게, 신보보다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이해되셨으면……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이것도요 금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 25년도에 보증 출연이 1000억이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금년 본 예산에 800억 원,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예상 외로 중동 사태라는 복병이 지금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도걸 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새로운 예상치 못했던 보증 수요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주로 중동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금 경색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수입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도걸 위원 수입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 소요를 지금 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지금 1000억하고 기보 1000억 각각 이렇게 쌍둥이처럼 이렇게 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걸로 충분합니까? 소요 계산해 봤을 것 아니겠어요, 보증 배수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일단 올해는 괜찮을 걸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 정도는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저는 원안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어떻습니까, 원안 유지 의견이?

그렇게 하시지요?

○김대식 위원 안도걸 위원님 설명 들으면 아주 일리가 있고 그렇다 하는데 정부에서의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안도걸 위원님이 전체적인 브리핑을 전부 하시지요. 그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오히려.

○박형수 위원 보류합시다. 보류해서 따져 볼게요.

○임미애 위원 이거는 신보와 기보는 함께 묶어서 가야 되는 건데요.

○박형수 위원 같이 보류해야지요, 그러니까.

○소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간사님,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기존의 보증 재원은 관세로 인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중동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보증의 경우. 그래서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을 보증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명이거든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게, 질문을.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보류하고 저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대식 위원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 중동 수출 기업이 이미 한 1만 5000개 정도 되고요.

○김대식 위원 1만 5000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현재 신보의 운용배수가 9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적정 운용배수를 10배~12.5배로 한다는데 이걸 맞습니까? 그게 맞으면 그 이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12.5배는 위원님,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거의 10배가 넘어가면 사실 신보 입장에서는 보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적정 배수가 10배~12.5배라는 의견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거는 사실 일반보증 재원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증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사 보증 재원이 남아 있더라도……

○박형수 위원 아니, 일단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12.5를 기준으로 했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이번에 최대 목표치는 12.5로 한 게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지.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거 할 때는 10배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전체 보증 규모를 산정할 때랑 특례보증은 리스크를 정부가 지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박형수 위원 그 부분도 특례보증하고 일반보증은 신보 내에서 회계를 구분해 놓는 것이지 이거를 지급하면 신보 자체, 정부에서 지금 출연하는 건 신보 전체 기금으로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운용할지는 그거는 상관없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사실상 보증 규모는 추경 재원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특례보증하고 일반보증은 신보에서 구분해 놓은 회계 기준일 뿐이잖아요.

○소위원장 진성준 우리 박형수 간사님이 잘 이해를 안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보류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보류해 놓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보류하고 다시 얘기해 봅시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4페이지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먼저 95페이지에 있는 내내역사업인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단기 일자리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단기 일자리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닙니다. 저희는 스마트제조 관련 학과 재학생·졸업생과 스마트제조 수급기관 간의 취업 매칭 통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확충이 동시에 달성 가능한 매우……

○소위원장 진성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단기 일자리 사업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95페이지도 설명을 할까요?

○조정훈 위원 예,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대중소 상생형 사업에 대해 두 번째·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저조하므로 7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5년 수요 수준에 맞추어 사업 규모 축소를 하기 위해 6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칸입니다. 7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내내역 사업인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단기 인건비 제공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칸입니다.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2개 사업의 감액에 대해 원안유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조AX 선도모델 같은 경우에는 즉시 공고 및 수시 모집 방식으로 7월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통상 설비 및 시스템 구축 투자는 초기 2~3개월 내에 집중되기 때문에 연내 추경 효과 창출이 가능하고요. 지난해 상생형 AI트랙 부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었고 특정 대기업과 사전 기획 수요조사 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지원 숫자가 적었을 뿐이고 실제로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의 경우에는 방금 단기 인건비 사업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 사업도 방금 전에 논의했던 우리 산자부의 여러 가지 AI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사업과 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소영 간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해 놓고 그런 취지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이소영 위원 예.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6페이지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내내역사업인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요건인 긴급성에 부합하지 않고 본예산에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므로 510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칸에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첫 번째 칸 또 다른 내역사업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본 지적 사항과 동일한 이유로 240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에 원안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2건 사업의 감액에 대해 원안유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역창업패키지 같은 경우는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지역창업 생태계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성장 동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과의 부합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과는 사업의 목적, 운영 방식, 지원 대상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업중심대학의 경우도 말씀드린 같은 이유로 추경 부합성이 높고 특히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 창업중심대학 예산과는 상이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는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역창업패키지 지금 511억 원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지요, 이거 지역창업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역창업패키지는 내내역은 신규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신규인데 보니까 창업도시 내에 소재한 창업기업 또는 수도권 등에서 창업도시로 이전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걸 걱정하는데 창업도시로 또는 수도권 등에서 창업도시로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게 지금 가정과 정책설계가 저는 엇박자가 크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미 중기부에 있는 기존 창업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요. 창업도약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 창업 지원 사업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랑 너무 지원 방식이 유사해서 결국 표지같이만 한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삭감 금액은 간사님들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할까요?

○박형수 위원 보류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98페이지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4년 협업 성과에 따르면 실증 고도화 등의 성과가 없으므로 274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칸에 원안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또 다른 내역사업인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성과가 저조하고 긴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2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두 번째 칸 원안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2개의 내역사업의 감액에 대해 원안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간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은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과의 협업 레퍼런스는 경기 위축 시에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신뢰의 자산으로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참여 기업 중에 95%가 매출이 늘었고 71%가 고용이 창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일부 성과만으로 전체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혁신적·도전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글로벌기업들의 수요와 기술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수요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률 비교를 하셨는데 21년에는 저희가 6개의 글로벌기업과 했고 26년에는 17개 기업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수요 편차가 있고 16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다변화 지원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국가의 글로벌기업들과 사업 참여를 논의 중이기 때문에 원안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두 번째,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저는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업기업들이 해외로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큰 시장으로 나가는 건 동의가 돼서 저는 이것은 원안유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이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 갖고 성과를 평가하는 건 미비하다라는 주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주장이 추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을 계속해서 2·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싶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추경까지 할 만한 이유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취지는 좋지만 아직 이 사업의 효과성은 중기벤처부도 검증을 못한 거잖아요. 지금 갖고 올 성과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하자는 것은 저는 동의가 어려워서 뒤의 것은 유지하되 앞의 민간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잠깐만 이것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2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매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투자 유치 성과가 달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검증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 2024년에 따르면 105개사 중에 40%인 42개사는 라이선스 계약, 공동 R&D, 실증 고도화 등의 성과가 없었다, 이걸 틀린 자료가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당해연도 실적은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많은 회사도 했지만 40%나 성과가 없었으면 사업 구조를 바꾸든

지 사업을 줄이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대기업과의 그런 협업이 1년 안에 성과를 낸 다라는 건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 성과 나왔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5년 성과는 지금 아직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그러시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더 협의하는 걸로 하고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원안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8번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X 창업허브 사업은—넷째 줄입니다—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비용을 위해 53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스톱 지원센터는 줄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긴급성에 부합하지 않는 점, 기능이 중복되는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3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두 번째 칸입니다—단일 창구를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업은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아닙니다. 전문 분야 상담이라든지 특화 프로그램 등 기업 직접지원비 중심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줄속 추진에 대해서는 창업자의 복합적인 애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상담 지원 사업으로 기존 창조경제센터에 해당 기능을 부여해 운영하는 방식이고, 이미 상담 실적 및 만족도 등에서 높은 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사실은 추경을 왜 하겠습니까? 긴급성을 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참 다들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서 AX 창업허브 17개소를 구축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잖아요.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고……

○김대식 위원 아니,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유사한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54억 원을 여기다 또 편성하겠다, 왜 이것 지금…… 이것을 전체를 좀 해 보고 나서 54억 원을 편성해도 되는데, 이런 거고.

또 보세요.

아까도 기존 예산에서 사업 목적 외 사용을 안 했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예산은 당초 490억 원에서 260억 원을 전용했어요. 그리고 선발인원도 810

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유사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54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뭔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긴급성이 좀 있어야 돼요. 돈 있으면 54억이 아니라 540억도 해 줄 수 있지요. 이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위원장 진성준 짧게 답변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있으면 해 줘야지요. 긴급성이 지금 떨어진다고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먼저 예산전용 지적에 대해서, 인원 축소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예비창업패키지라는 명목의 선발인원은 줄었지만 모두의 창업을 통해서 4000명의 기술창업자를 선발해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총합으로 보시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예비창업자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아니고 창업기업의 심층 상담 및 특허 지원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 중복되는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김대식 위원 그러면 490억에서 260억을 전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비창업패키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대식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이 아니라……

○김대식 위원 항목 변경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항목 변경도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비창업자 지원이라는 목적 기능은 유지하면서 다만 운영 프로세스만 일부 변경을 준 겁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 이소영 간사님.

○안도걸 위원 AX 창업허브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이게 창경센터예요. 지금 창조경제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경센터가 원래 원스톱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창조센터는 원스톱 지원 기능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모든 복합 애로, 그러니까 창업자를 지원하는 역할은 해 왔지만 법무, 세무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역할은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창조경제센터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차관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가지고 답변해야 될 사항 같고.

그것 하라고 창조경제센터 생긴 지가 벌써 10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그 역할을 하라고 지금 창조경제센터가 있는 거지, 창조경제센터에서 이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창조경제센터는……

○소위원장 진성준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1페이지, 9번입니다.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추경 증액분 중 10억 원은 재도전응원본부 운영 예산인데 참여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긴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최근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동 사업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지적하신 세계기업가정신주간 행사는 동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100만 폐업자 시대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실패기업인의 힐링캠프, 재도전 IR 등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전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150억 정도 되고요, 추경을 말씀하시면 거면……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 10억 삭감을 우리가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전체는 100억 중에……

○김대식 위원 100만 폐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일단은 실패 원인 분석이라든지 마음 다스림 등을 위한 힐링캠프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재도전 기업들을 위한 IR 행사를 통해서 투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대식 위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100억 중에 10억이고 재도전응원본부 운영예산인데 이게 기업가정신주간 참여자 수가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한 사업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무관한 사업입니다.

○이소영 위원 이거는 감액 제기가 금액이 크지 않은데 원안 유지하면 어떨까요?

○김대식 위원 원안 유지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간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동의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100만 폐업자들의 사기 양양도 있고……

○소위원장 진성준 배고프시다고 그러는데 빨리 잡시다.

원안 유지하고 잡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지출, 감·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사업은 펀드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 보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7페이지 혁신창업 사업화자금(융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긴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재정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15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혁신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긴급성 측면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신용도가 취약한 창업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거는 박형수 간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나보고 얘기하라고?

○김대식 위원 예.

○조정훈 위원 이것도 융자사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융자사업입니다.

○조정훈 위원 기존에 이미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2026년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산 넣으셨는데, 1조 60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현재 49% 집행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융자를?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거는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 금액을 더 늘려 보세요. 다른 데보다 여기가 금리가 낮으니까 이거를 당연히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은 것이지, 그렇게 신청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무작정 늘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검토를 해 봅시다.

○조정훈 위원 이율이 몇 %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이율은 기본 정책금리……

담당 국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진성준 예, 그러세요.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한 3% 내외 정도 되고요.

○임미애 위원 정책자금인데 3%예요?

○조정훈 위원 확실해요?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예.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중진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중진채 발행금리에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신용기업은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목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걸러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한 가지만, 이거는 체크해야 되겠네요.

창업기반지원자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5년도에 1조 5000 공급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금년이 1조 3000이잖아요. 2000을 줄인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가 정상화 될 거다라고 해 가지고 규모를 좀 줄인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여기도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지금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런 수요를 감안한다면 작년도 결산 수준까지는 올려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00억 정도 이거는 충분히 있잖아요, 그 소요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창업지원금 내지는 운영자금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 돈이 이율이 낮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는 창업 기업들이 있다, 스타트업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저희가 일단 뵙을 때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서 혁신성 및 유망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비는 원안 유지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사후관리도 지금 따져 봐야 되는 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도 3890억 원가량의 사고 금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아요? 현재 사고 금액……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3890억이……

○박형수 위원 그 정도?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한 해……

○소위원장 진성준 사고 금융의 내용이 뭐예요? 보고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글로벌 성장정책관입니다.

중진공의 전체 1년 용자금 규모가 3조 8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고 이 자금에 대해서 그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뭐라고? 다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그러니까 이 자금은 중진공 전체 자금 규모가 3조 8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안에 부실률이라든가 사고율을 퍼센티지로 나눴을 때 이제 3000억 원 정도……

○김대식 위원 3000억 정도가 부실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예.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그거는 당해연도에 나간 자금도 있지만 과거에 나간 자금도 거치하고 상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합산된 금액이라고 보셔서, 이 금액에 그 정도가 다 부실이라고 보시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한 부실 금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누적 부실이라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누적 부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거는 일단 보류해 놓고 저 말이 맞는지부터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지출, 감·증액 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소상공인 지원(용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추경 증액분 3200억 중 청년고용연계자금 1500억은 연령 중심의 느슨한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등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 효과와 무관하므로 15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방금 새로 들어오셨는데 인사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중기부2차관 맡고 있는 이병권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청년 소상공인이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청년 소상공인과 또 청년을 고용한 일반 소상공인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 가장 취약한 청년층이 자영업 비즈니스도 하면서 또 고용됐을 경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 사업이 지금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사업에? 그래서 일단은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1700억 원은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되고요.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1500억 원, 청년고용연계자금 이 부분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지원 대상으로 보면 결국은 이게 청년 사장님 또는 청년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사장님. 이런 사장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자율은 2.96%, 7000만 원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사업 중에 최고의 사업 상품입니다. 그렇지요, 장애인 2.0% 빼고는? 가장, 2.9%로 요새 대출받을 가능성은 무슨 담보를 제공해도 없기 때문에 수요가 높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자율 낮췄으면 아마 미어 터졌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금리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건지 필요한 사람에겐 주는 건지에 대한 다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특히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 진행 방식을 보면, 아마 금융기관에서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담보력하고 신용도가 높은 사업자에게는 쉽게 쉽게 나갈 거고 우리가 진짜로 도와주고 싶은 영세·취약 소상공인은 담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1500억 증액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조정훈 위원 이게 원래 금액이 얼마지요, 26년?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1500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요, 추정 말고.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본예산도 1500억이고요.

○조정훈 위원 본예산이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1500억인데 거기에……

○조정훈 위원 1500억인데 또 1500억, 100% 하는 거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1500억은 집행이 얼마나, 거의……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지금 4월 초인데도 벌써 한 45% 집행이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2.95%니까 저도 할 수 있으면 하겠어요, 7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님, 그런데 사실 저희들 소진기금의 금리가 낮은 것은 모든 자금에 공통된 사항이라서 꼭 이 자금만 그렇다라고 비판하시는 것은……

○조정훈 위원 이것보다 더, 2.96%의 상품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저희 소진기금의 금리는 지금 평균 3.4% 정도 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낮은 상품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중에서 낮은 축에 속합니다.

○조정훈 위원 제일 낮은 상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일반 은행금리에 비하면 저희 소진기금 여러 사업들이 대부분 금리는 낮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은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이만큼이 필요하실지.

○소위원장 진성준 임미애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저는 이 사업비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에서 사실 이 예산에 대한 수요가 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역에 대한 안분도 필요하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위원님, 저희 로컬창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약 80% 정도를 지방에 배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90%까지 높여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시기에는 가장 취약한 층에 속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이 자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게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이번에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타격이 굉장히 컸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직접적인 지원은 우리가 많이 못 해요. 물류비라든지 바우처 이 정도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자금을 용자를 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 내십시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이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미 소상공인들한테 정부가 발표도 했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안도걸 위원 해 가지고 이걸로 응급적으로 버티겠다라는 거니까 이 소요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국민 약속을 한 거니까 이 사업 소요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소상공인한테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청년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이 자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청년 고용 이것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에 지원을 하되 청년 고용하는 데 일종의 약간의 특혜를 더 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안도걸 위원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원안유지가 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어떻게 할까요?

이것 반영하시지요.

○안도걸 위원 그냥 가시지요. 원안유지 하시지요. 이게 유일한 자금이에요, 소상공인한

테 지원해 주는.

○임미애 위원 지역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은 금리 때문에 여기 많이 오는 건데……

○안도걸 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 금리 수준은 과거부터 있었던 거고……

○김대식 위원 1500억에서 45%가 지원이 됐다, 지금 4월인데 45%가 지원됐다고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본예산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소진 예측이?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본예산만 가지고 저희가 하면 아마 여름 정도에는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수용하되 정부부처는 이번에는 콘셉트가 청년인 것 같아요. 다 청년을 붙여 가지고 ‘고유가 되면, 전쟁 나면 최고 힘든 게 청년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사업을 가져오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은 청년인데 보류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위원님들이 하자고 그러면 이것은 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형평성이나 기준이 맞겠느냐, 지금 나는 사실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은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다른 부처 또는 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왜 그것은 추경에 안 된다고 그러고 똑같이 전쟁추경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해 줄 것인지……

그래서 저는 보류된 것 비슷한 취지인 것은 같이 보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것 하자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류를 해서 같이 같은 기준에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진성준 아니, 단기일자리 사업들은 우리가 다 보류했는데 이것은 단기일자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조정훈 위원 융자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융자사업이고, 이것은 원안대로 가기로 해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 원안 반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중기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2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 변경안 증액분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2기 운영을 위한 것인데 수요가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데 과도한 증액은 부적절해 보이트로 282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칸에 원안 유지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님,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로컬창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1차 사업에도 굉장히 높은 참여 열기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지 2주도 안 됐습니다만 1000명을 모집할 예정인데 벌써 1000명을 초과를 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5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으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테크창업보다는 그 지역에 밀착된 생활형 창업에 굉장히 더 친숙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영해 주시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청년들 커피숍 만드는 것도 전부 여기에 포함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이것은 단순한 그렇게 식당이나 치킨집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가미돼서……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아이디어가 굉장히 그것 하잖아요, 커피숍이라든지. 내가 대정부질문 하는데 요즘 마약떡볶이라든지, 하여튼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제가 여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업종으로 하면 포함이 되지만 그냥 카페라고……

○**김대식 위원** 포함이 되잖아요. 일단 신청을 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냥 카페는 저희가 선발 안 하고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스토리를 입힌 카페가 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카페를 전부 다 스토리를 입히지요. 부산 같으면 부산 갈매기 카페라든지 뭐 해서 상품도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 좀……

제가 이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 저도 참여를 해 보고 이러는데 이것 굉장히 모순점이 많아요. 해 주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전부 거기가 폐업하고 뭐 하고 완전히 밑 없는 독에 물 붓기 형태로 해서 아주 단기간에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님,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업으로……

○**김대식 위원** 성공한 케이스가 1000명이면 몇 명이 나와요? 5명도 안 나오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기업으로 크게 성장하는 로컬창업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산의 감태를 활용해서 수출까지 연결되는 기업들도 나오고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그런 청년들의 로컬창업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대식 위원** 로컬창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부작용이 너무 심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최근에 제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가장 미역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그냥 묶음으로 파는 그런 미역이 아니라 그것을 브랜딩을 하고 상품 가치를 높여서 그것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하고 관련된 예산인데요. 아까 앞서서 모두의 창업 예산이 보류됐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중기부 끝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이제 국회 구내식당을 이용할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좀 준비를 시켰으니까요.

○박형수 위원 밥 먹고 해.

○이소영 위원 이것 하나 남았어요.

○김대식 위원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어요.

○박형수 위원 아니, 햄버거가 아니고 하나 하고 식사하고 소소위 하는 거잖아.

○김대식 위원 소소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각자 헤어지고.

○조정훈 위원 주시면 먹습니다.

○이소영 위원 나중에 주시면 먹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햄버거를 따로 드려요 아니면 따로 식당을 밤늦게라도, 8시부터라도 하는 데로 잡아요? 잡지 말까요?

○박형수 위원 각자 알아서 먹고……

○소위원장 진성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에서 많이 기다리신 모양인데 지식재산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처장,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김용선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같이 하신……

○지식재산처기획조정관직무대리 박현희 기획조정관직무대리 박현희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자료 119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처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 사업 1건만 있습니다.

1번,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추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세 번째 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인증표장 개발 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9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칸에 원안 유지 필요 의견과 세 번째 칸 5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해외에서 케데헌, BTS 열풍 등으로 해서 해외에서 우리 K-Brand 상품이 인기가 높아지는데 그에 따라서 위조상품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고유가에 따른 원가 상승에다가 위조상품이 급증하는 것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월 6000억 정도 매출 손실을 일으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에서 정부가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와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아까 전문위원 얘기한 것처럼 25년에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디자인 개발 예산이 1억 반영돼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정부 인증 상표를 세계 70개국, 수출 98%를……

○조정훈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차지하는 세계 70개국하고……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하는 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시작하면 계속사업이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계속사업을 시작할 것을 추경에 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95억을 요청하셨는데 인건비 4억이 있는데 10명에 7개월에 월당 인건비가 500만 원입니다. 사소하면 사소한데 이거 굉장히 비싸네요. 제가 봤던 국가사업 인건비 중에 아마 최고치가 아닌가 싶은데 왜 500만 원씩이나 인건비를 잡으셨어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거기에는 전 세계 70개국에 상표 등록 그다음에 기업 신청·관리·홍보 그런 예산들이, 그 관리하는 전담 인력들 예산입니다. 1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기에 500만 원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주로 그 지식재산권을……

○조정훈 위원 계리사를 고용하시는 겁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식재산권의……

○조정훈 위원 변리사를 고용하시는 겁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변리사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70개국에 상표 등록을 하고 기업 지원을……

○조정훈 위원 저는 조금 예산을 줄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시작은 하겠지만 첫술에, 특히 추경에서 전쟁추경을 하는데 K-Brand 슬쩍 밀어넣고…… 다들 지금 BTS 파시는데요. BTS가 정부 때문에 잘된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정부가 BTS에 별도와준 게 있다고 계속 BTS만 팝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 K-Brand 정부 인증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특히 중국 등에서 우리 것 모조해서 돈 버는 것 막아야지요.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슬쩍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시고 내년에 정식

으로 예산 청구하셔서 폴 스케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간사님들 끼리 일정 부분은 삭감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안도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도결 위원 처장님,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계속사업입니다.

○안도결 위원 아니지, 신규사업이잖아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이번에……

○안도결 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시스템을 계속 반복시킬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은 가장 시급한 게 세계 70개국에 상표 등록을 먼저 해 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그것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안도결 위원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다른 기업 지원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안도결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타이밍을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이걸 QR코드를 사진을 찍으면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신고할까요?’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국내에서 추적도 가능합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그게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늦게 되면……

○안도결 위원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예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이걸 원샷이라 그래요.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안도결 위원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건 원샷입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그 비용이예요, 이게. 그래서……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상표를 선점당하게 됩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그래서 시급합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짝퉁 막고 하는 그건데……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예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막강하고.

○소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간사위원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설득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보려니까.

○박형수 위원 이 사업에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 등록하는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근본적으로 보면 상표권은 사기업이 자신이 보호해야 되는 건데 이것 위임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다음, 홍보비 같은 게 여기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홍보비 내역에 보니까 인플루언서 협업비, 케이팝 스타 협업비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이게 내용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인 사업내역의 필요성을 좀 판단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조금 걷어 내고 필요 있는 부분들은 하는 이렇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소위원장 진성준 상세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형수 위원 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조정훈 위원 예,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너무 많아요.

○소위원장 진성준 좋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지식재산처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심사한 건가요?

남은 게 또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아닙니다. 이제 감액심사는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감액심사 끝났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소위원장 진성준 이상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한 일차적인 감액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업과 증액사업 등 아직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류 및 증액 사업 등 기타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위원장이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류 및 증액 사업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7인)

김대식 박형수 안도걸 이소영 임미애 조정훈 진성준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재운

입법심의관 최철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허장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예술정책관 이용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무역정책관 나성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국일
 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금한승
 제2차관 이호현
 기획조정실장 안세창
 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
 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청년고용정책관 하창용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제2차관 홍지선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기획예산처

차관 임기근

예산실장 조용범

정책기획관 박봉용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기획조정관직무대리 박현희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국세청

청장 임광현

기획조정관 김지훈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김휘영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

입시회의록